주체112(2023)년

차 례

머 리 말

희세의 정치원로로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시고 만민의 신뢰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 전과정에 관통되여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으며 탁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혁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였지만 원쑤들을 내놓고는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깔보며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려는 마음을 가져본적이 없었다고, 그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동지이고 벗이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생애를 혁명적동지애, 인간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력사로 수놓으시였다.

한없이 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오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여 수령님과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세상에서 동지와 벗이 제일 많은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와 숭고한 도덕의리, 넓으신 도량과 아량있는 포옹력에 매혹되여 인생의 방향전환을 한 사람들, 그이의 벗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인정미와 숭고한 도덕의리, 넓으신 도량과 아량있는 포옹력으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맺으신 가슴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가운데서 그 일부를 수록하였다.

1. 아시아의 벗들

주은래(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주은래총리사이의 마지막상봉은 주체64(1975)년 4월 베이징의 정부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미전부터 주은래동지는 중병을 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병문안을 하실 결심을 하시였다. 그런데 주은래동지의 병상태가 위독하여 만나보실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의 상봉의 시각을 안타까이 기다리시였다.

마침내 주은래동지의 병이 좀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원천리하고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주은래총리는 큰 수술을 받고난 뒤여서 운신을 하기 힘들었지만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도 갈아입고 퉁퉁 부은 발을 천신에 끼면서까지 외교관례에 어긋나지 않게 갖출것은 다 갖추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려 몰라보게 상한 주은래총리를 보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시여 그를 부둥켜안으신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수척해질대로 수척해진 모습을 볼수록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냥 그의 등을 어루쓸어주실뿐이였다.

주은래총리도 위대한 수령님을 붙안고 격정에 겨워 미처 말문을 떼지 못하였다.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그 눈물겨운 상봉앞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 혁명동지의 정을 주고받으시며 오랜 시간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술이 잘된데 대하여 기뻐하시며 거듭 따뜻한 고무를 주시였다.

주석동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줄 알았는데 이처럼 찾아주시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먼길을 오신 주석동지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메여 말하는 주은래총리의 눈굽에서는 뜨거운것이 줄곧 흘러내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작별의 시각이 왔다. 주은래총리는 억이 막힌 어조로 앞으로 주석동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것 같다고 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그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립장과 옳바른 가르치심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습니다. 세계혁명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정치의 공인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아야만 옳게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따뜻이 포옹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주은래총리와의 마지막상봉이였다.

참으로 주은래총리를 혁명동지로, 친근한 전우로, 가장 가까운 벗으로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는 만사람을 감동시키며 세계정치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 빛나고있다.

오쏘르쑤렌긴 체르마(몽골)

주체77(1988)년 12월말 평양으로 향한 국제렬차에 한 나이지숙한 몽골녀성이 타고있었다. 그 어떤 공식대표단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대외관계상 중임을 지닌 사절도 아닌 한 평범한 몽골녀성인 그가 이 길에 오른데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가.

이 녀성은 몽골 전 조선전재고아원 식모 오쏘르쑤렌긴 체르마였다. 그가 조선과 인연을 맺은것은 1952년 조선전재고아들을 키우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는 주체45(1956)년 7월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뵈옵고 그이의 자애로우신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때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에 이어 몽골을 국가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장한 일정과 겹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험한 초원길을 헤치시며 전재고아들이 있는 곳을 찾으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떠나보내신 고아들이 보고싶으시여 그 멀고 외진 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울면서 마구 달려와 옷자락에 매달리는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잘 있었는가,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생각을 할것 같아 자신께서 왔다고, 이제부터 자신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으신채 침실도 돌아보시고 식당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맛보시였으며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들과 헤여질 때가 되였다. 옷자락에 매달리며 따라서는 그들을 두고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시며 부탁할것이 없는가, 요구할것이 있으면 어서 다 말하라고 정답게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아이들이 조선의 간장, 된장을 먹고싶다는 등 제나름의 생각들을 말씀올리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 요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이 모든 광경을 하염없는 눈물속에 목격한 체르마녀성은 속으로 웨쳤다.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애롭고 인자하신 미소, 활달하고 소탈하신 풍모, 이분이시야말로 만물을 키우고 따사로움을 주는 태양과 같으신분이시라고.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식료품 등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더 잘 보살펴주리라 마음다지고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그때로부터 3년후인 주체48(1959)년 6월 다 자란 전재고아들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나뵙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주체77(1988)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몽골을 친선방문하시였다.

그때 한 일군으로부터 1950년대 조선전재고아들을 맡아키운 식모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어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긴장한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체르마녀성과 그의 딸을 만나주시였으며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주체77(198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전쟁시기 우리 전재고아들을 돌봐주던 오쏘르쑤렌긴 체르마와 그의 딸이 자신을 찾아왔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 나라에 와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새해 1월 1일을 앞두고 그를 딸과 함께 초청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체르마녀성과 그의 딸이 평양으로 또다시 향하게 되였다.

그들모녀의 조선방문은 참으로 꿈만 같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은정속에 그이를 모시고 진행하는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이름난 공장, 농촌, 학교를 비롯하여 의의있는 대상들도 참관하였다.

그러던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들모녀를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빛같이 환하신 웃음을 지으시고 그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대해주시며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훌륭한 전우이라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조선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오라고, 우리에게 페를 끼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자주 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오랜 인류력사의 갈피에 위인과 평민사이에 생겨난 사랑과 의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지만 한 나라의 수령과 외국의 한 평범한 녀성간에 꽃펴난 이런 숭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쌈부(몽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주재 초대몽골대사였던 쌈부와의 인연은 전화의 불길속에서 맺어졌다.

주체41(1952)년 쌈부가 본국으로 소환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주체50(1961)년 2월 어느날 조선주재 몽골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쌈부의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쌈부위원장동지를 우리 나라에 정식 초청한다고, 쌈부위원장동지에게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교시하시였다.

몽골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전화의 나날에 함께 싸운 전우로서 그를 초청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를 가

슴깊이 새기며 대사는 수령님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기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씀올리였다.

그해 4월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쌈부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와 함께 싸운 전우라고, 참으로 진실한 동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쌈부가 조선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가 리용할 숙소와 승용차까지 일일이 보살피시였으며 그를 만나시여 뜨겁게 포옹해주시고 잊지 못할 전화의 나날을 회고하시였다. 그에게 혁명동지라는 가장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조선주재 초대몽골대사로 있은 기간의 그의 공적을 평가하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를 환영하는 국가연회도 차리게 하시고 나라의 곳곳에서 환영군중대회도 조직해주시였으며 환영예술공연도 전례없이 성대하게 하도록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그는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평양과 원산, 청진과 함흥의 여러 공장과 협동조합, 양수장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혈육의 정이 넘쳐흐르는 환대에 눈물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때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흘렀다.

쌈부가 세상을 떠났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시여 그의 자녀들을 조선에 친히 초청해주시였다.

주체78(1989)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쌈부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쌈부동지는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였다고, 그는 조선전쟁시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와

함께 후퇴도 하였으며 고생도 하였다고, 조선인민과 몽골인민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쌈부동지의 높은 국제주의적의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쌈부의 자녀들은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옛일을 두고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며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싶어하는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쌈부를 초청하시였을 때처럼 각근히 돌봐주시였다. 맏아들의 생일날에는 친히 중요부문의 한 일군을 보내시여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그들은 귀국에 앞서 아버지처럼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후 쌈부의 맏아들은 두 나라의 친선을 도모하는 협회의 부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이 되면 축전을 올리였다. 거기에는 아버지처럼 살려는 그의 마음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비슈와나스(인디아)

인디아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였던 비슈와나스는 어려서부터 학구열이 높았고 탐구심이 강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책읽기에 바쳤으며 사색하기를 좋아하였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점차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참답게 산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이 움터올랐고 자기도 그들처럼 살고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이것은 그대로 오랜 기간 외래침략자들에게 억눌려살아온 자기 조국 인디아를 위해 한몸바치려는 고귀한 사상감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진보적사상과 리론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라면 빠짐없이 읽으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모대기였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고충은 나날이 커만 갔다. 선행고전들에서도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을 찾아낼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의 어느한 출판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것이 빛나게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소개한 글을 읽게 되였다.

비슈와나스가 받은 충격은 컸다. 그때부터 그는 서재에 묻혀 바깥출입을 안하고 버릇처럼 굳어진 아침산보시간과 지어는 식사시간까지 잊어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러던 비슈와나스는 어느한 기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였다.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으로 가슴펴고 살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은 그를 몹시 놀라게 하였다. 이역땅에 흩어져 제 나라 말과 풍습조차 다 빼앗겼던 그들이 총련이라는 강력한 조직을 뭇고 하나의 대가정이 되여 자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가고있었던것이다.

과연 어느분이, 무슨 힘이 거치른 이역의 하늘아래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존엄있는 해외공민으로 되게 하였는가. 비슈와나스는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돌아보고서야 그 답을 찾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멀리에 있는 자식들까지 한품에 안아주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이시고 구세주이시라고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가보고싶은 충동을 강렬하게 느끼였다. 그리하여 주체63(1974)년 12월 그는 조선에 대한 첫 방문길에 오르게 되였다.

조선방문기간 그가 본 모든것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궁지와 희열에 넘친 얼굴들, 거리에 차넘치는 생기발랄한 숨결, 창조로 들끓는 벅찬 현실들…

특히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였다. 비슈와나스는 가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따르는 조선인민의 진정에 넘친 경모의 정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비슈와나스가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참관하였을 때 조선의 한 일군에게 어떻게 설계도면 한장 없이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만들어낼수 있었는가고 질문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이에 그 일군은 별다른 재간이 없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데 주인이 주인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한가지 생각을 가지고 달라붙었더니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의 밑바탕에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자기 힘을 믿고 전진하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놓여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비슈와나스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조선방문의 나날에 받은 충동이 너무나도 컸기때문이였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책상을 마주하고 심장의 느낌을 글로 적어나갔다. 바로 이렇게 씌여진 글이 조선방문기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인민, 한분의 수령님》이였다. 글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순결한 사상감정에 대하여, 조선인민이 발휘하고있는 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있다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비슈와나스가 원고의 마지막페지를 넘겼을 때는 동틀무렵이였다. 창가에 섰노라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듯 존귀하고 위대하신분에게 기쁨을 드릴만 한 일을 해놓지 못하고 만나뵙는다는것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묻어두기로 하였다.

그는 인디아로 돌아가기에 앞서 조선의 안내원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자기 가정에도 모실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중히 제기하였다. 그의 이 간절한 청원속에는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변함없이 받들어모시려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려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비행장에 바래주려고 나온 조선일군의 손을 잡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비록 이 몸은 떠나지만 심장 한끝은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조선에 두고 간다고, 다시 이 나라를 찾아와서 **김일성**주석을 꼭 만나뵙겠다고.

그후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에날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가는 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전하는 활동에 자기의 온 심혈을 다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류다른 친분관계를 맺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인간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숭고한 인품과 덕망은 절세의 위인을 절대적으로 흠모하며 따르는 길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치려는 비슈와나스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여기에 자신뿐 아니라 인류의 참다운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기에 비슈와나스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으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사업하면서 생애의 말년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변함없이 걸을수 있었다.

고빈드 나라인(인디아)

1985년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인디아의 특산물이며 이름난 과일나무인 사향과나무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그로 하여금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것과 같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늘 가지고다니면서 그 진수를 심장에 새기였다.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과 관련한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는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면서 그분들의 위대성과 고매한 풍모에 더더욱 매혹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전사로 한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한생을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로 굳세게 살아가려는 그의 심장의 토로였다.

고빈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과 그를 구현하는데서 응당 아시아가 세계의 앞장에 서야 하며 또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방조할 국제적인 기구를 내오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정력을 다하였다.

주체69(1980)년 9월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창립회의가 열리였다. 여기에서 그는 서기장으로 선거되였다.

그후 그는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의 위대함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주체70(1981)년 7월 어느날 평양비행장(당시)을 리륙한 비행기가 어느한 나라의 수도를 향해 날고있었다. 비행기에는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고빈드가 타고있었다. 떠날 때부터 편치 않던 그의 몸상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도중에 어느한 나라의 병원에 실려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 한몸도 돌보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하던 그가 외국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유능한 의사와 함께 귀중한 약재를 보내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침상에 누워있느라면 조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싶을것이라고 하시며 고빈드의 아들을 그의 곁에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2(1983)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기간 생일을 맞는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그의 부인과 어린 아들에게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고빈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하기에 고빈드는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덕의 화원을 펼쳐나가고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여 따르는 여기에 바로 조선의 힘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으며 사는것이상 더 큰 행복은 없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최대의것이기때문이다. 하거늘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분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행복, 그 영광을 어디에 비기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자신을 이 세상의 행운아라고 말하게 된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은 그 어디에나 따사로이 비쳐주고있다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도저히 따를수도 대비할수도 견줄수도 없는 사랑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라고 감격에 목메여 말하였다.

조국으로 돌아간 고빈드는 사랑을 받을줄만 알고 그에 보답하지 못하면 의리를 저버리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어떤 선물을 올릴것인가 하고 온 가족과 토의하였다. 그러던 끝에 이름난 열대과일나무인 사향과나무를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다.

사향과나무는 사철푸른 열대과일나무이며 열매에는 로화를 방지하는 물질과 여러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어 건강장수에 매우 좋다고 한다. 지난 시기 인디아에서는 사향과열매만 먹으면 만년장수한다고 하면서 매우 귀한 과일로 일러왔다.

고빈드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명한 지도자로, 스승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자기의 진정을 그대로 선물에 담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과일나무양묘장에 나가 충실한 나무모 10그루를 선정하였다. 그는 인디아주재 조선대사관일군들에게 《이 소박한 선물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받아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나무모는 수확량이 많고 맛이 좋은 훌륭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모입니다.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번식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그는 사향과나무의 생태적특성과 재배관리에 필요한 자료들, 열매의 가공 및 저장방법에 대한 자료들까지 자기가 직접 써서 보내였다.

평양에 억세게 뿌리내린 사향과나무에 깃든 뜻깊은 사연, 그것은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진달래 싸파리니, 무스타파, 야스민(팔레스티나)

주체101(2012)년 11월 진달래 싸파리니는 진달래아동기금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기금의 설립을 선포하던 날 진달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와 가정에서 마련한 첫 기부금을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훌륭하게 꾸리는 사업과 평양산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기증하였다.

주체102(2013)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진달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를 세상에 태여나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신 **김정일**장군님께 다졌던 맹세를 실천하고 기쁨의 보고를 올리게 된 감격과 진달래아동기금을 설립하도록 따뜻한 고무와 지지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터놓으며 자기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축복해주실것을 정중히 청원하였다. 그때까지 진달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축복을 받아안고 성장한 영광과 행운을 잊지 않고 좋은 일을 한 다음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미루어왔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시고 진달래의 결혼과 새 가정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조선과 팔레스티나의 친선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진달래라는 이름을 영원히 빛내이기 바란다는 축하인사를 친히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결혼식날에 입을 옷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축복속에 뜻깊은 결혼식을 하는 진달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남다른 삶에 대하여 되새겨보았다.

주체72(1983)년 9월 어느날, 보석주단이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평양산원의 중앙현관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외국

인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당시 우리 나라주재 팔레스티나외교대표로 평양에 상주하고있던 무스타파 알 싸파리니의 안해 야스민이였다.

녀인들이 금실은실로 주단을 짜서 《하느님》이나 《나라님》의 발밑에 깔아드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한 나라의 령도자가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위해 그들의 발밑에 보석주단을 깔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내 언제 들어본적이 있었던가.

보석주단우를 조용히 걷는 야스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세차게 북받쳐올랐다. 다른 나라의 이름있는 병원들을 다 다녀봤고 좋다는 약도 다 써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였던 그의 부부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받고 결혼한지 10년만에 귀여운 옥동녀를 보았던것이다.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 그들부부는 자기들의 진정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예로부터 자식을 낳으면 가장 학식이 높고 존경하는분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오군 하는 팔레스티나의 풍습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딸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스타파가정의 경사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딸의 이름을 《진달래》라고 지어주시고 건강과 앞날을 축복하는 뜻으로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진달래 싸파리니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무스타파부부는 자기들을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로 되게 해주시고 딸의 건강과 장래를 축복하여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신 그 사려깊은 은정에 어쩔바를 몰라하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진달래가 받아안은 사랑은 실로 끝이 없었다. 주체81(1992)년 5월 무스타파 알 싸파리니는 우리 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아버지와 함께 작별인사를 드리러 온 진달래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고 그의 아버지에게 앞으로 잘 키우라고 당부하시였다.

어느한 국가행사때 있은 일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주재 외교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당시 외교단 단장이였던 무스타파 알 싸파리니는 제일 앞자리에 서있었다. 그가 진달래의 아버지라는 소개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진달래와 가정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그후부터 무스타파 알 싸파리니를 만나면 직무를 부르지 않고 《진달래 아버지》라고 부르군 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손길을 떠나 삶의 희열과 행복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 진달래였다.

하기에 진달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중국주재 우리 나라대사관을 찾아와 화환을 진정하고 피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조의록에 가장 친근한 아버지의 서거에 가장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달래에게 베푸시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수카르노(인도네시아)

주체53(1964)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그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극진히 환대하여주시였다.

방문기간 그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반제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수상각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우리 인민들에게 가르쳐야 할 철학입니다.》라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게 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회의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석하여주실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제의를 쾌히 승낙하시였으며 주체54(1965)년 4월 이 나라를 방문하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친선의 표시로 최고훈장인 인도네시아공화국훈장 제1급을 수여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한없는 흠모심은 이 나라 식물학자가 새로 육종한 희귀한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한데서 더욱 분출되였다. 새로운 종류의 꽃을 육종해냈다는 보고르식물원 원장의 보고를 받고 그곳에 나간 대통령은 아직 꽃에 이름을 달지 못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이 꽃은 지금까지 내가 본 꽃들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고 진귀한 꽃이다, 나는 이 꽃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김일성**각하의 존함을 모시려고 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것은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싶어하는 수카르노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발현이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고르식물원을 돌아보실 때 자기가 결심한바를 정중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이 사양하시자 그는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

하시였으니 응당 높은 영광을 지니셔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올렸다. 식물원 원장도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해주실것을 간청올렸다.

그로부터 10년세월이 흘러 **김일성**화는 조선에 뿌리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 이 나라 수행원들속에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아들 그루 수카르노뿌뜨라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대통령이 그가 동행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존경과 흠모심은 그대로 아들 그루 수카르노뿌뜨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주체90(2001)년 4월, 새 세기의 뜻깊은 첫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김일성**화전시회(당시)에 참가한 그는 36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던 그때의 잊을수 없는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름답게 피여있는 꽃이 **김일성**화로 명명되게 된것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아버지의 흠모심의 표시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나의 아버지는 조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친절한 인민에 대하여 특히 **김일성**주석은 자신의 친근한 벗이라는데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화가 활짝 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열대식물인 **김일성**화가 조선의 기후풍토에서 그것도 겨울에 피여났다는 사실도 놀라왔지만 전문원예사도 아닌 인민군병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키웠다는것이 더욱 놀랍다.

김일성화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를 얼마나 경모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았다. 또 주석께서 영생하신다는 말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김일성주석각하와 나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친분관계를 맺었으며 나의 아버지는 **김일성**주석각하를 세계정치의 원로로, 덕망이 하늘처럼 높으신 위대한 성인으로 칭송하였다.

김일성화는 **김일성**주석과 나의 아버지를, 인도네시아와 조선을 따뜻하고 친근하게 이어준 친선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시기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고 **김일성**화는 온 누리에 만발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카르노의 딸인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도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한 아버지의 마음까지 합쳐 뜨거운 심정을 담은 축전을 보내여왔다.

야씨르 파르라(수리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풍모에 탄복하고 매혹되여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는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수리아의 야씨르 파르라도 있었다.

그는 오랜 기간 조선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구현된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조선이야말로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던 리상향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주체60(1971)년 10월 어느날 주조 수리아외교대표로 사업하기 위해 평양에 온지 얼마 안되는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파르라를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허물없이 대해주시였으며 담화후에는 무랍없이 올리는 그의 간청대로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인간애와 소탈하신 품성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걸출하고 덕망높은 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주체의 나라 조선에서 사업하게 되였다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하여 끓어오르는 격정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후 파르라는 여러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그가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참관하였을 때였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들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녀성로동자들의 일터를 몸소 찾아주시고 그 누구도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 작업장에 서린 증기를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그것을 말끔히 없애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신 이야기, 로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도 제일 좋은 건물로 쓰도록 하시였다는 이야기…

이뿐이 아니다. 파르라가 조선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것은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답게 불리우고있는것이였다.

파르라는 조선의 현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안게 되였다. 그럴수록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한길로만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필승불패성의 원천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숭고한 인덕에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이렇게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나는 조선에서 꽃펴난 인간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 모든것은 곧 **김일성**주석께서 베푸신 인덕으로 하여 백화만발하는 화원이라고 웨치고싶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에 꿀벌이 날

아드는것은 하나의 순리라고 할수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 특유한 인간향기로 만민의 심장을 끌어당기고계신다.》

파딜 아비드(수리아)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주체66(1977)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아랍만공보기구 국장 파딜 아비드가 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형상한 초상화도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숭엄하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원문그대로 번역한 아랍어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하였다는 사실이다.

세계미술사에는 재능있는 회화의 거장들이 남긴 걸작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신 절세위인의 영상을 이처럼 독특한 기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훌륭히 형상해낸 명화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이 뜻깊은 선물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아랍나라 언론인들의 단체인 아랍만공보기구 국장 파딜 아비드는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는 수리아의 출판계인사이다.

파딜 아비드는 조선을 여러번 방문하였으며 그때마다 나날이 변모되고 륭성번영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였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앞두고 의의있는 선물을 마련할 결심을 품게 되였다.

이러한 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로작의 구절구절을 격동된 마음으로 읽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을 새기면 새길수록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로작이야말로 발전도상나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라는 확신으로 하여 그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위대한 사상이 담긴 이 로작원문의 글자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다면 얼마나 의의있고 뜻깊은 선물로 될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뜻밖의 착상에 흥분된 그는 이름있는 한 미술가를 찾아갔다. 아비드의 절절한 심정을 듣게 된 미술가도 감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랍글자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형상하는 전례없는 창조사업이 시작되였다.

로작원문의 글자를 그대로 리용하여 초상화를 그린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아비드와 미술가는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특이한 기법으로 작품을 훌륭히 완성하고야말았다.

아비드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초상화를 탄생 65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아랍글자로 정성껏 형상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찾는 내외의 수많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외국의 한 인사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이런 글을 남기였다.

《**김일성**주석각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원문그대로 번역한 아랍어로 주석각하의 영상을 훌륭히 형상한 선물만 보아도 그이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존경심과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참으로 조선인민이 부럽다.》

이 뜻깊은 선물은 정녕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흠모심을 가슴뜨겁게 전하여주는 자랑스러운 국보, 위인칭송의 결정체이다.

아비다 슐타나(방글라데슈)

어느해인가 프랑스에서 조선예술인들이 국제성악콩클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그때 이 나라의 도시 뚤루즈의 거리에서 조선예술인들은 방글라데슈의 한 녀성을 만났다.

옥같이 맑은 얼굴에 한껏 웃음을 짓고있는 그는 **김일성**화목걸이를 걸고있었다. 그는 방글라데슈 다카예술단의 독창가수 아비다 슐타나였다.

새까만 곱슬머리에 윤기도는 눈동자로 하여 보기에도 어여쁨과 매력을 자아내는 그가 어떻게 되여 **김일성**화목걸이를 지니게 되였는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슐타나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그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연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때 아비다 슐타나는 조선노래 《고마워라 어버이사랑》을 조선말로 독창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아비다 슐타나는 공연도중에 위대한 수령님께 무릎을 꿇고 조선절을 올리였다.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더 높이 울리였다. 슐타나는 다시 무대에 나섰다. 그는 방금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반복하였다. 노래 《고마워라 어버이사랑》은 슐타나의 지정곡이였다.

…

고마워라 어버이 그 품속에서

인민들은 화목하게 살아간다네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온 세상은 부러워 우러러 본다네

…

공연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고 영광의 기념촬영까지 한 그날 저녁 방글라데슈예술인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나 아비다 슐타나만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조선일군이 조용히 그에게 몸이 편치 않은가고 물었다.

한참만에 마음을 진정한 슐타나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평양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솟는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한 방문은 우리 가문의 더없는 행복이다. 만약 절호의 기회가 있어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오면 꼭 그이의 존함친필을 모셔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 집은 더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다. 만민의 태양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공연하기만 해도 그것은 큰 행운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비다 슐타나의 아버지 카비르 챤다르는 방글라데슈의 수도 다카는 물론 지방도시에까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보석세공품제조업자였다. 어머니는 보석의 나라로 불리우는 스리랑카의 콜롬보녀성이였다. 슐타나는 외동딸로서 다카종합대학 음악학부를 졸업한 가수였다.

그날 저녁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외국의 한 평범한 예술인이 품고있는 소원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예술단이 어느날 떠나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으면 떠난다고 대답을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손으로 가볍게 책상을 어루만지시다가 위대한 장군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을 풀어주시였으면 어떻겠는가고 말씀드리시였다.

금수산 푸른 숲에는 달빛이 유정하게 흐르고있었다.

정원의 풀잎들도 잠든 깊은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카의 처녀가 소중하게 품고온 수첩에 활달한 필체로 새기시였다.

《김일성》

위인의 숭고한 인간애, 무상의 친화력이 그 존함에 어려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한생을 안겨살아도 뜨겁기만 하고 만민이 다 안겨도 끝이 없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였다.

딸이 조선을 방문하여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고 다카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카비르 챤다르와 어머니는 무한한 행복감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을 보고 또 보았다. 볼수록 새 힘이 솟고 그려볼수록 왕성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필체였다.

아버지는 귀여운 딸에게 영광과 흠모의 표적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가문에 친필을 보내주시였는데 가만있으면 도리가 아니라는것이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김일성**화를 새긴 보석목걸이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딸이 항상 조선의 **김일성**주석을 마음속에 안고 그이의 노래를 불러 온 세상을 **김일성**주석에 대한 찬가로 메아리치게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즉시 보석목걸이가공에 달라붙었다. 다른것 같으면 몇주일동안에 제작할수 있으련만 챤다르는 정성을 다하여 몇달 걸려서야 완성하였다. 목걸이의 가운데에는 자연색그대로 형상된 **김일성**화가 새겨져있었다. 실로 어둠속에서도 밝은 빛을 뿌리는 보석목걸이였다.

카비르 챤다르는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뚤루즈국제성악콩클에 떠날 때 사랑하는 딸에게 이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물론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애용하던 진주목걸이도 있었고 황금과 보석들을 박아넣은 품위있는 장식품도 있었다. 그러나 숱타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김일성**화가 새겨진 목걸이가 제일이였다. 조선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감정은 숱타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맑고 깨끗한 뚤루즈수림에는 노래 《고마워라 어버이사랑》을 부르는 숱타나의 청높은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목걸이, 그것은 흔히 녀성들의 치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태양을 따르는 마음이 깃든 **김일성**화목걸이는 례사로운 장식품이 아니였다. 심장형장식에 **김일성**화의 꽃송이를 부각시키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한 목걸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만민의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있다.

김일성화목걸이에 깃든 사연은 오늘도 전해지며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이노우에 슈하찌(일본)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여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태양송가를 한껏 터치고있다. 이들속에는 자주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격류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자기의 삶을 빛내이고있는 일본인사회활동가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도 있다.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참된 삶을 누리고있는 그의 인생에서 진보적인류는 만민을 품어 생의 활력을 부어주고 참된 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의 세계에 대하여 되새겨보고있다.

훌륭한 동지라고 불러주시며

사람마다 인생에서 전환적인 계기가 있다. 이노우에 슈하찌의 경우에도 이런 계기가 있었다.

주체71 (1982) 년 5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이노우에 슈하찌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이날은 그의 일생에서 영원히 지울수 없는 행복한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홀에까지 나오시여 이노우에를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순간 태양의 품에 안긴듯 달아오르는 격정과 흥분으로 그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고 마음속에서는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기쁨과 감격에 젖어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며 스스럼없이 건강부터 물으시였다. 이노우에는 긴장되였던 온몸이 저도 모르게 확 풀리는것 같았다. 어버이의 다심한 풍모를 느꼈던것이다.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시작된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품에 끌린 이노우에는 온갖 어려움도 잊고 지나온 인생행로에 대하여 자초지종 말씀드리였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형제들과 갈라진 이노우에는 남의 집에서 고달프게 어린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린 그의 가슴에는 단란한 가정의 꿈마저 짓밟은 저주로운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차올랐다. 일본군에 복무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그는 고학의 설음도 겪었다. 일본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낀 그는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되였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노우에는 맑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탐독하였다. 자본주의경제체제론에 제나름의 날카로운 비판의 《수술칼》을 대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그에게 경제학박사, 교수의 칭호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저술활동을 심화시켜나갈수록 헤여나올수 없는

모순에 빠져들게 되였다. 그 어느 선행리론에서도 자기가 바라던 인간사랑의 리념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리론적사색에서 동요를 가져오고있던 이노우에는 어느한 기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전문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에 환희가 차넘쳤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로작에 담겨진 사상리론들은 인간사랑의 리념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던 그의 몸에 생명수가 되여 흘러들었다.

위대한 사상을 따르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이노우에는 스스로 경제학자로부터 주체사상신봉자로 인생전환을 하게 되였다. 하지만 하나의 의문만은 지워버릴수 없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일본사회와 전혀 다른 인간중심의 사회가 있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이노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선에 가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그는 주체67 (1978) 년에 처음으로 조선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조선의 현실에 매혹될수록 이노우에는 조선으로 가는 배와 비행기에 자주 올랐다. 하지만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범한 학자에 불과한 자기를 만나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한 소원이 드디여 풀리게 된것이였다.

그처럼 경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지금껏 품어오던 가슴속사연을 다 아뢰고보니 동심의 꿈세계에 사는것만 같았다. 사

람에게 어찌 육체적생명만 있다고 하랴. 위대한 태양은 한 인간에게 또 하나의 생명, 정치적생명을 주었던것이다.

이노우에는 격정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 《주석각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야말로 참다운 생명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에 기꺼이 나설 결의를 다지였다.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속생각을 스스럼없이 터놓는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훌륭한 동지를 얻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동지！

아직은 별로 한 일이 없는 내가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분의 동지가 되다니！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무한한 격정으로 그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한 자기를 몸소 만나주시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이노우에는 난생처음 행복의 눈물을 흘리였다. 행복에 겨운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법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와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에 앞서 이노우에에게 다시 오면 그때에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오늘은 처음 만나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면 구면친구로 될것이라고, 다음번에 올 때에는 가족과 함께 오는것이 좋겠다고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이노우에 슈하찌를 훌륭한 동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오도록 초청하시고 국가적인 주요기념행사들에도 참가하도록 하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따뜻이 만나주시였다. 그

가 생일 60돐을 맞을 때에는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생의 활력이였으며 그를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준 원동력이였다.

사상에 대한 매혹은 그 창시자의 인간적풍모에 매혹될 때 공고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위인칭송의 글을 쓰고 또 썼다.

위인에 대한 흠모심, 가장 진실하고 순결하며 열렬한 경모와 신뢰의 정은 엄혹한 현실속에서 검증되는 법이다.

주체79 (1990) 년 봄 이노우에가 어느한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집필에 여념이 없던 이노우에는 전화종소리에 무심중 송수화기를 들었다. 거기에서는 주체사상보급활동에서 손을 떼라는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미 사무실과 집에 달려들어 란동을 부린적이 있는 일본의 우익깡패들이였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주체사상이 있는 한 나는 영생할것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다. 그후 일본반동들은 비렬하게도 그를 차로 깔아 죽이려고 책동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주체사상을 따라 나아가는 그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로 이노우에는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진 그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조선만세를 부르며 조선에 대해서만 연구하지 일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비평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어째서 주체사상이 조선에만 국한된 한 민족의 사상이겠는가. 주체사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배워야 할 사상이며 조선에서 창시되였지만 인류의 사상, 세계적인 사상이다.》라고 당당히 쏘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쑈적횡포에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지켜가는 이노우에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였다.

주체79 (1990) 년 9월 17일 조선을 방문한 이노우에 슈하찌를 또다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된것을 축하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고 연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축배잔까지 찧어주시였다.

주체82 (1993) 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노우에 슈하찌가 첫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았을 때에도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진정 이노우에 슈하찌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할수 없는 무한대한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행운아였다.

하기에 그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매혹은 주체사상에 대한 매혹에 앞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그이에 대한 매혹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태양의 빛발따라

참된 인생의 보람을 한껏 누리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정열을 바쳐가던 이노우에 슈하찌는 뜻밖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정력에 넘치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은정어린 감사까지 받아안고 돌아온 그로서는 하늘이 다 무너져내려앉는것만 같았다. 크나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던 그때 이노우에를 한품에 안아주신분이 계시였으니 그분은 다름아닌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시며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였다.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조선의 벅찬

현실에서 이노우에 슈하찌는 주체의 태양은 꺼지지 않았으며 영원히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ㅡ오늘 세계는 **김정일**총비서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을 보고있다. **김일성**주석그대로이신 **김정일**총비서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의 신념의 태양은 영원히 빛나는것이다. **김정일**총비서의 해빛같이 밝은 미소는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미소 그대로이며 세계정치를 좌우지하시는 그 령활무쌍한 지략도 20세기 정치사를 주름잡으신 주석의 지략 그대로이다.

이노우에 슈하찌는 이런 신념을 간직하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과 위인칭송의 글을 집필하는데 모든것을 깡그리 바쳤다.

《현대조선과 **김정일**비서》를 저술하여 세상에 내놓은 때로부터 그가 집필한 도서와 글들은 수십건에 달하였다. 숱한 전화와 전보들이 날아들었다. 그는 순간에 유명한 사람으로 되였다. 그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한가득 차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의 위인상이 크나큰 영예를 안겨준것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주체84(1995)년 3월말 이노우에는 꿈같은 소식을 전달받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일 70돐을 맞는 그를 평양에 부르신다는것이였다. 순간 이노우에는 기쁨보다 죄스러운 감정이 앞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한돐도 되지 않은 때에 어떻게 조선에 가서 생일상을 받는단 말인가. 사실 이노우에는 총련에서 차린 생일축하연에 참가하여 축복을 받았었다. 그러나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평양에서 생일상을 받도록 다시금 불러주신것이였다.

주체84 (1995) 년 4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이노우에 슈하찌의 생일 70돐을 기념하는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은정어린 생일상과 선물이 전달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이 깃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이노우에의 가슴속에서는 한없는 고마움으로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만 해도 끝이 없는데 평양에서 그것도 나라일을 론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생일축하연회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정을 가슴에 새기는 이노우에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수없이 컸다.

사랑의 70돐 생일상을 받아안은 그의 눈앞에는 20세기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환히 안겨왔다. 그날밤 만수대언덕에 오른 이노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주석각하!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김정일**총비서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김일성**주석의 하늘같은 사랑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며 전사인 이노우에는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김정일**총비서를 받드는 한길에서 주체의 삶을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켜 이노우에는 고령의 몸이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선전하기 위해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이나날 혁명령도업적들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된 농장들과 국가과학원 등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린 현지지도단위들을 쉬임없이 찾고 또 찾았다. 그가 대수술을 받은 상태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조선의 일군들이 건강을 돌볼것을 권고하자 그는 **김정일**총비서의 위인상에 대하여 세계가 알도록 하는것이 이제 남은 생의 중대한 과제이라고 하며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

주체89 (2000) 년 4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15차회의에서 명예리사장으로 선출된 이노우에 슈하찌의 머리속에는 복잡다단하였던 20세기 마지막년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수십년간 존재하여오던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진통을 겪게 되자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았다. 바로 이러한 시기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

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갈길 몰라 방황하던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에 희망의 표대를 안겨주시였으며 세계정치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정의의 철추를 내리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계자주화위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이노우에 슈하찌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21세기를 주름잡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는 새 세기의 위인이시라고 동료들에게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며 그이의 위인상을 소개선전하는 글을 집필하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주체91 (2002) 년 2월 이노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도서의 머리말에서 오늘에 와서 21세기 세계의 움직임을 **김정일**총비서께서 헌신적으로 령도하고계시는 조선의 현실과 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모르고서는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21세기 위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총비서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 이것은 이노우에 슈하찌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류가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와 고결한 덕망, 비범한 령도력에 매혹되여 터친 다함없는 칭송이다.

오가미 겡이찌(일본)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에 매혹된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인 오가미 겡이찌도 있다.

원래 그는 병마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손에 수술칼을 잡을 결심을 굳혔다.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 그는 하나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였다. 병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것은 사회악이며 그것은 수술칼이나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근로인민대중을 괴롭히는 사회악을 없앨 방도를 찾는데 심신을 바치기로 하였다. 고전철학에 파묻혀 밤을 새우기도 하였고 학생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던중 한 동료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김일성**전》을 탐독하였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흥발전하는 조선의 현실을 수록한 영화도 보게 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였다.

1970년대에 만경대를 찾는것으로부터 조선방문을 시작한 그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생명력과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었다. 그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사회악을 쳐없애는 명약이며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있음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그는 독창적인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을 따르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는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조선문제연구회를 뭇고 주체사상선전보급활동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20세기 인류가 우러러 받들어야 할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주체사상은 인류의

념원을 꽃피우는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였다.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벌려나가던 그는 조선을 다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나신 자리에서 비록 이번에 처음 만나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들은 다같이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같은 전우, 같은 동지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널리 선전하며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뜨겁게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주체101(2012)년 2월 16일이였다.

이날 제16차 **김정일**화축전장으로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왔다. 그들중에는 한 일본인도 있었다. 그가 바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그이의 혁명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들, 영상작품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붉게 피여난 위인칭송의 꽃 **김정일**화！

축전장은 그야말로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룬 꽃바다였다. 눈부신 붉은빛이 온 축전장안을 꽉 채웠다. **김정일**화가 발산하는 그 빛은 축전장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붉게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선전과 주체사상연구 및 보급사업을 위해 한생을 바쳐온 오가미 겡이찌의 마음도 더욱 붉어지는듯싶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붉게 피여난 **김정일**화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오가미 겡이찌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혀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뵙고싶은 간절한 소원과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분출이였다.

(아, 태양같이 환하신 그이의 모습을 다시는 뵈올수 없단 말인가!)

그의 가슴속에서는 슬픔의 파도가 심장을 울리며 세차게 일었다.

오가미 겡이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처음 만나뵈온 날은 주체79(1990)년 10월 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가미 겡이찌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오가미 겡이찌의 마음은 마냥 설레이였다. 만민이 태양으로 우러르는 그이를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여서만이 아니였다.

외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 만나뵈옵는 사람들모두의 마음을 한순간에 휘여잡는 환하신 그 미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정녕 태양의 모습이였다.

오가미 겡이찌의 심장속에는 그날에 만나뵈온 절세위인의 태양상이 깊이깊이 새겨져있었다. 이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모시고 투쟁하는 전사로 된 영광을 받아안았다고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오가미 겡이찌는 2월의 명절때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조선을 찾아오군 하였다. 그는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다.

그런데 주체101(2012)년 2월의 광명성절은 가슴아프게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지 못하고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그이를 태양으로 믿고 따르던 오가미 겡이찌의 가슴속에서 어찌 비애와 그리움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본 오가미 겡이찌는 《**김정일**화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참관하면서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여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고 자기의 감정을 터놓았다.

야스이 가오루(일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진리의 빛발속에 인생의 말년을 떳떳이 빛내이며 산 외국의 인사들중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교수 박사 야스이 가오루도 있다.

야스이 가오루는 어떤 인생행로를 거친 사람인가.

1930년 봄에 도꾜에서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국제법학을 명실공히 평화와 진보를 위한 학문으로 발전시키리라 결심했다. 수십년세월 《평화옹호, 우호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진보적인 사상에 대하여 저술한 수만권의 장서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세계의 이름있는 정치가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야스이 가오루가 한생을 기울이다싶이 하며 안타까이 찾고있은 영생의 진리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접한것은 1960년대말이였다. 그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출판보급되고있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함께 《**김일성**전》을 탐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불패의 진리성은 그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그후 야스이 가오루는 60이 넘은 로학자로서 주체사상연구에 정력을 쏟아부었다. 1972년의 이른봄날에는 도꾜대학의 한 방에서 학계의 동료들인 교수, 학자들과 함께 **김일성**원수님저작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0돐을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하던 주체61(1972)년 4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는 전국사회과학자대회가 열렸다.

류례없는 규모로 성대하게 열린 대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저명한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수많이 참가하고있었다.

바로 이들가운데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이며 국제법학박사인 일본사회과학자대표단 단장 야스이 가오루가 있었다.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대회의 연단에 야스이 가오루도 올라섰다. 그는 자신이 깊이 연구체득하여왔으며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확신을 가지고 대회참가자들을 향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신것은 조선력사뿐 아니라 세계력사에 아로새겨진 영생불멸의 업적이라고 칭송하면서 오늘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여 세계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회참가자들을 향하여 휘황찬란한 미래에로의 길을 개척하는 모든 투쟁에서 싸우는 인민, 싸우는 혁명가, 싸우는 과학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정열, 용기와 지혜를 안겨주는 이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함께 어깨겯고 나아가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대회기간 외국의 학자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평양대극장의 넓은 응접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스이 가오루에게로 다가오시여 친히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건강과 체류기간의 생활에 대하여 따뜻이 물으시였다. 그리고 이날 야스이 가오루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만수대예술단의 공연도 함께 관람해주시였다.

야스이 가오루는 마음속깊이 품어온 숙원을 끝내 실현하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쳤다.

안따꾸 쯔네히꼬(일본)

일본의 전 중의원 의원 안따꾸 쯔네히꼬는 1940년대 체신로동조합 야마가다현안의 자그마한 지부의 서기장으로 있었다. 그때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미점령군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 억울하게 연금되였었다. 그 탄압을 계기로 안따꾸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들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열심히 문헌을 수집하기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온 조선인민의 빛나는 력사를 배웠다. 그 과정에 그는 민족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게 되였다.

그러던 그가 주체59(1970)년 8월 일본사회당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8월 15일을 경축하는 모임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조선주재 각국 대사들과 조선을 방문한 수많은 대표단들이 경축회장으로 들어갔다. 개회전부터 경축회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음악선률이 조용히 울리고있었다.

어느한 아랍나라 음악이 연주되였을 때였다.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아랍나라의 대표단성원들이 자국의 음악이 연주되는데 흥분하여 《재청》하고 련이어 소리쳤다. 안따꾸를 비롯한 여러 대표단성원들이 놀라 어리둥절해있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 대표단쪽을 돌아보시면서 경축회를 담당한 일군에게 한번 더 연주하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안따꾸는 이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몰랐다.

후날 그는 《그이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적이랄가 매우 소탈하신 동작으로 웃으시면서 한번 더 하라는듯 담당한 사람에게 손시늉을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분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분이시다. 이런 일을 흔연히 할수 있는 수령이 다른 어느 나라에 또 있을것인가. 아마 **김일성**주석뿐이실것이다.〉》라고 격동되였던 자기의 심정을 글에 옮기였다.

그해 8월 22일 안따꾸를 비롯한 일본사회당대표단은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에서 일본사회당대표단 성원들에게 세계정세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정형 등 광범한 문제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환하신 미소를 띠우시고 시종 명쾌한 해명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 같으신 모습에 안따꾸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몹시 감동되였다.

이날 점심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하시며 대표단성원들을 연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연회장에서 담화가 진행되고있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리다위원장에게 재일조선공민의 민족적권리옹호문제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러자 나리다위원장은 《안따꾸군이 잘 알고있기때문에 그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리였다. 안따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해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리가 멀어 말하기 힘들테니 자신쪽으로 오라고 하시며 손짓으로 그를 부르시였다. 그때 안따꾸는 《전 목소리가 커서 여기서도 일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 선채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는 가까이 마주앉아 해야 통하기 쉬운 법이라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거듭 교시하시였다.

안따꾸는 어쩔바를 몰라 망설이였다. 관계부문 일군이 안따꾸앞에 있던 음식그릇이며 접시들을 모두 위대한 수령님 가까이로 옮겨갔다.

안따꾸는 정말 놀랐다.(한 나라의 수령으로서 이렇듯 소탈하게 대해주시는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참으로 친절하시고 꾸밈이 없는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 흥분되였던 자기의 심정을 안따꾸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김일성**주석께 홀딱 반하고 말았다.》

왜 그렇지 않으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욱 메마른 기계와 《현대문명》의 노예로 전락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 온갖 사회악의 나락속에 빠져가는 일본의 현실을 목격하며 사랑의 참세상을 갈망하여온 그였다. 그러던 그가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적도 없는 그이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안았으니 그의 마음이 어찌 환희와 영광으로 부풀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는 참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였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많은 글들에서 표현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온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였다.

안따꾸가 주체61(1972)년 1월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이때 수행한 여러 신문기자들을 포함하여 일행중에 안따꾸를 내놓고는 모두가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조선을 방문하고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하나같이 이야기하였다.

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관가까이 승강기앞에까지 나와 맞아주시고 모든 사람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감격해하였다.

특히 안따꾸는 **김일성**주석께서 당신은 요전에도 만났다고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는 동행한 사진기자들이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 그때의 사진을 소중히 보관해두고 때때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부러움을 사군 했다고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을 추억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매우 친절하신 어조로 일조간의 관계, 남조선정세, 《유엔군》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들어앉은 미군의 도발행위의 실태, 조선력사로부터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조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것이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정형과 일조 두 나라 인민의 우호관계촉진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와 두 나라의 장래를 위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교시하시였다고 회고하였다. 주석께서 재미있는 일화들을 섞어가시며 가르쳐주시는 바람에 잔뜩 긴장해있던 다른 성원들도 어느새 끌려들어 이따금 폭소를 터뜨리기까지 하는 화기에 찬 분위기가 넘쳤다는데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구노단장은 약속한 시간이 지난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시간이 되였다고 슬며시 신호하였다. 그런데 주석께서는 어느새 눈치채시고 시간은 일없다고, 념려말고 어서 말하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주석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한사람, 한사람의 말을 미소를 띠우신채 전부 들어주시였다. 친근하고 위대한 주석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못내 그리워하였다.

농촌에서 나서자란 안따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 강서군 청산리당총회에서 하신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라는 연설이 수록된 소책자를 많이 구해다가 젊은 청년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부를 시킨 일이 있었다. 그때 반향이 대단히 컸다고 한다. 그들속에서는 《알기 쉬운데다가 한 나라의 수령이 어쩌면 그리도 농촌실정을 속속

들이 잘 알고계실가. 참 대단한 일이다. 조선의 농촌현실을 이 눈으로 직접 보고싶다.》라는 목소리들이 연방 튀여나왔다고 한다.

그후 그는 여러차례 《조선의 농업과 일본》이라는 제목밑에 좌담회를 열게 되였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안따꾸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함은 이렇듯 일본의 자그마한 농촌에까지 널리 알려지고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위인상을 선전하는데 적극 떨쳐나섰다.

그는《조선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면서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조국에 포근히 안겨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살고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라는 그것이다. 정말 부럽기 그지없다. 나는 조선의 새로운 발전과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확신하며 일조 두 나라 인민의 진실한 련대를 수립하는 운동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투쟁할 결심이다.》라고 말하군 하였다.

안따꾸는 일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격찬과 흠모로 일관된 선전사업과 조선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되였다.

오에 요시유끼(일본)

오에 요시유끼로 말하면 일본의 한 도시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출판업자이다.

어려서부터 자본주의세계 일본에서 나서자란 그가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넣은 희망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고아로 부모의 사랑대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온 지난날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를 멸시하던자들이 보란듯이 살아보리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그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것이였는가를 페부로

느꼈다. 일본의 부패한 정치제도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소기업의 운명이란 풍파에 떠가는 쪽배신세나 같았다.

매일과 같이 닥쳐오는 대기업들로부터의 위협과 공갈은 한층 더해만지고 재산소유정도에 따라 인격과 가치가 평가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그로 하여금 반항의 길에 나서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줌도 안되는 대기업에 의하여 좌우지되는 정치가 그에게 가져다준것은 탄압과 파산뿐이였다. 이 세상에 과연 인민을 위한 정치, 나같은 최하층출신의 평민들이 편히 살게 해줄 정치가 없단 말인가.

이러한 번뇌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조선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른것은 주체79(1990)년 10월이였다.

조선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 현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지구상에 과연 이런 나라가 존재한단 말인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후에 《조선에 와서 첫 느낌은 누구나 공평하게 살고있다는것이였다. 부자도 가난한자도 거지도 없었다. 천대하는자도 없었고 천대받는자도 없었다. 나의 처지, 출신을 놓고 일본사회와 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나는 어린애마냥 눈물을 흘리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였다.》라고 회고하였다.

그의 감동을 자아낸것은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정치가 펼쳐져 모두가 희망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능력껏 일하고 아이들이 돈 한푼 안 내고 공부하며 무료로 병치료를 받고있는것이였다.

감동이 커갈수록 그는 이런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과연 어떤분이실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사회를 세워주신 그분들의 위인상을 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작은 힘이나마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방문일정도 료해하시고 숙식조건도 헤아려주시였으며 백두산으로 갈 때에는 비행기도 리용하게 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는 무상으로 치료받도록 대책까지 취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에는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군 하시였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갖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한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대해 알게 되였을 때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그럴수록 그이를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왔으면 하는 갈망을 달랠수가 없었다.

절세위인에 대한 그의 가장 열렬한 매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80돐이 되는 주체81(1992)년 4월 15일에 절정에 달하게 되였다.

이날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옵는 최상의 영광을 지녔던것이다.

그는 《**김정일**각하를 만나뵈옵게 된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였습니다. 나는 일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이께서 친히 나의 손을 허물없이 잡으시고 따뜻한 말씀을 하여주실 때 나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습니다. 정말 **김정일**각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인민적인 정치를 펴나가시는 인민의 지도자이십니다. 그이께서는 뜨거운 빛과 열로 만물에게 생을 주는 태양과 같이 피압박근로대중을 따뜻이 안아주고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품, 태양의 품인 **김정일**각하의 품에 안긴 나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근로인민대중은 참으로 행운아들입니다.》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그가 누구이건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본반동들과 우익깡패들의 협박과 위협을 박차고 조선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그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가 출판선전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세심히 관심해주시였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사실을 헤아리시고 귀중한 보약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이 있었기에 그는 도서 《백두산자료집》, 《백두산사진첩》과 같은 출판물들을 발행함으로써 일본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시였으며 친부모도 대신하지 못할 육친적사랑을 부어주시였다.

그가 60돐 생일을 맞게 되였을 때였다.

그를 축하하여 그의 집에 모여왔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국의 평범한 중소기업가의 생일을 축하하여 선물을 보내주신것이였다. 당사자인 그로서는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든 선물을 쓰다듬으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나같은 사람의 생일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각하를 만나뵈온 영광, 그이의 선물을 받아안은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김정일**각하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십니다. 그이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미노베 료기찌(일본)

일본의 전 도꾜도 지사 미노베 료기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매혹되고 그이를 친어버이로 절대적으로 믿고 우러러따르는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어려서부터 대바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다. 그 과정에 인민전선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감옥살이도 하였으며 일본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세력의 인사로서 도꾜도 지사로 당선되였다.

1967년 도꾜도 지사직에 취임한 그는 조일 두 나라사이의 자유래왕과 국교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특히 그는 총련의 조선대학교인정을 반대하는 일본반동정부의 립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1968년에 조선대학교를 정식 인정하였다.

이러한 그가 총련을 통해 조선방문의사를 표시한것은 주체60(1971)년 10월이였다.

그의 조선방문의향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노베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조선방문을 기꺼이 수락하시였다.

그후 조선을 방문한 미노베일행을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은 우리의 친우인 한덕수의장과 가까운 사이이기때문에 자신께서는 도꾜도 지사로서만이 아니라 친우로 맞이하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미노베는 몸둘바를 몰랐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사죄하는바이라고 말씀올렸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본과 조선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꾜에서 평양까지 오는데 2～3일이 걸린다고 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도 큰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말씀올렸다.

자책어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일본의 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사죄하는것은 응당하지만 일본인민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고, 자신께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몇십년동안 싸웠지만 일본인민들을 반대하여 싸운적은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인품에 미노베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미노베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금 일본의 민주세력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자기 나라의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군국주의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의 생각을 긍정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사선생이 일본인민들의 편에 서있기때문에 재선당시 과반수의 지지표를 얻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미노베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어린 교시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리 일본의 민주세력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해도 **김일성**각하께서 인민들로부터 받고계시는것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지지는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조선인민들은 **김일성**각하를 한사람같이 높이 신뢰하고있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자기를 스스럼없이 대해주시며 세계정치문제들을 론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깊은 모습은 미노베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이날 미노베일행을 위하여 친히 오찬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은 그만두고 가정적분위기에서 점심식사나 하자고 다정하게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오찬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미노베는 조선인민이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전변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씀올리고나서 공장과 농촌에 자주 나가시는가고 질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자주 나간다고, 사회주의나라에서 집권당들이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공장과 농촌에 자주 나가야 한다고, 그래야 군중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아, 얼마나 위대한 인민적수령이신가！ 정녕 이분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인민이라는 존재와 한시도 뗄수 없이 하나로 굳게 련결되여있는 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에 감복한 미노베의 가슴속에서는 위인칭송의 파도가 뜨겁게 물결쳤다.

그후 일본으로 돌아간 미노베는 잊을수 없는 조선방문의 나날 자기가 온몸으로 느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하늘같은 은혜를 잊을수 없어 명절때마다 수령님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전보와 편지를 삼가 올리군 하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랐으며 조일국교정상화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다까기 다께오(일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생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일본에 가면 꼭 선생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망한 선생의 부인에게 조의를 표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 일본을 방문한 조선기자동맹의 한 일군이 당시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이며 전 《요미우리신붕》 론설위원 다까기 다께오의 집에 찾아가 한 말이다.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물을 뜻밖에 받은 다까기 다께오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다까기 다께오의 눈앞에는 뜻깊은 조선방문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주체60(1971)년말 그는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해 12월 31일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마다 이날을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신다는것을 알고 거기로 달려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19시 30분, 위대한 수령님께서 궁전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만세!》의 환호소리가 온 궁전에 메아리쳤다. 앞줄에 있던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려가 그이의 팔에 매달렸다. 뒤쪽에 있던 아이들도 저저마다 다가가 그이의 품에 안겨 눈물이 글썽하여 《만세!》를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시고 철부지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다정히 들어주기도 하시는가 하면 어린이들의 볼을 정답게 다독여주기도 하시며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시였다.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는 순간 다까기 다께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아, 저분이 바로 세인이 그처럼 경모하여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이시구나.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귀중한 돈으로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주신 **김일성**장군,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일떠세운 사회주의락원에서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설을 쇠는 지도자가 과연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분만이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하실수 있다.

더우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팔과 어깨에 매달리는 아이들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으로 부풀어올랐다. 아버지를 만난것과 같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 나라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일생 탐구해온 세계를 움직이는《아시아의 새로운 힘》을 처음으로 보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아시아를 론할수 없었다.

이러한 때 조선에서 울려나온 보도, 그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알게 되였을 때 그는 조선이다, 조선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시아를 론할수 없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인은 조선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보고싶은 충동으로 조선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왔을 때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의 공연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공연을 지도한 교원들에게 자신의 친우라고 소개하시였다. 손님에 불과한 자기를 친우라고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교시를 듣는 그의 마음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번에 공화국을 방문하면 주석께서 1930년대에 활약하신 혁명전적지들을 찾아가 전기를 쓰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흔드시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쓰겠으면 인민에 대하여 써달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분이시야말로 참된 인민의 수령이시다.) 라는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에게는 누가 자기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그 누구건 주석의 곁에 있으면 마치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듯 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오랜 벗에 대한 감정과 같은 따뜻한것이 느껴진다.》

기자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친우로 대해주시고 건강으로부터 취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올릴지 몰랐다.

다께오일행이 동해안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살림집건물들이 해빛을 받으며 한폭의 그림처럼 줄을 지어 서있었다. 그는 무슨 집들이 이렇게 경치아름다운 곳에 줄지어 늘어섰는지 궁금하였다. 그는 《저건 무슨 호텔입니까?》하고 물어보았다. 동행한 일군의 말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 바다에 나간 어로공남편들을 걱정하는 안해와 자녀들을 위해 바다가의 풍치좋은 곳에 아빠트를 세우도록 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는 몹시 흥분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어디를 가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셨다고 말하는 로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아이들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만났다. 어디에 가도 위대한 수령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존경이 불길처럼 타번지지 않는데가 없었다.

드디여 그는 아시아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찾았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의 아시아에는 새로운 파도가 일고있다. 오늘의 기본조류는 주체이며 현시대는 주체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여기에 아시아의 빛이 있다.》

그가 찾은 진리는 오늘도 빛을 뿌리며 아시아와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니시다니 요시오(일본)

일본 《미라이샤》 사장이였던 니시다니 요시오가 조선에 처음으로 찾아온것은 주체59(1970)년 6월 어느날이였다.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책으로만이 아닌 실체험을 통하여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평양방문을 통하여 그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어느덧 시일이 흘러 귀국날자가 다가왔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도 열망하였고 또 조선에 와서도 그처럼 고대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떠나야 하는 그의 마음은 커다란 공허감과 아쉬움으로 가득차있었다.

그의 이러한 속마음을 헤아려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6월 23일 니시다니 요시오는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승용차를 타고 내각청사에 도착한 니시다니 요시오는 승강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모든것이 꿈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승강기문이 열리였다. 순간 그는 너무나도 뜻밖의 사실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승강기앞에 서계시였던것이다.

(한 나라의 수령이 한개 출판사 사장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시다니！)

그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자고 하시였다.

니시다니 요시오는 설레이는 마음을 억누를수 없었다. 사진기의 섬광들이 번쩍거리였다.

이윽고 그는 응접실로 안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담배를 권하시며 체류기간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 래일 나호드까를 거쳐 귀국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체류일정을 한주일간 더 연장하여 휴식도 충분히 하고 모스크바를 거쳐 비행기로 귀국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니시다니 요시오일행을 만나는 시간이 왜 미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니시다니 요시오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공화국을 방문하고있다는것과 세계 각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련이어 조선을 방문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못하고있은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량해를 구하시듯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에 니시다니 요시오는 그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도발책동이 바다와 륙지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충돌이 1년에도 수천번이나 된다고, 그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자금을 국방예산지출로 돌려야 하는데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그 자금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질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그것이 조선의 통일을 어떻게 방해하고있는가에 대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하루빨리 철거시키는것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기탄없이 설명해주시였다.

아무런 허물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정담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방한 가르치심은 참으로 인민적이고 매력적이였다.

니시다니 요시오는 담화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풍부한 지성과 고매한 인민적풍모, 전략전술가로서의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희세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니시다니 요시오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넘쳐흐르는 뜨거운 인정미에 대하여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후날 이에 대하여 《인민적이며 친근하시며 인간적견인력이 풍부하신 **김일성**주석의 움직이심의 하나하나는 나의 가슴속깊이 아로새겨졌다.》라고 자기의 글에 썼다.

첫 순간에 인간의 온넋을 완전히 매혹시키는 그 인간애, 인정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천품이였다.

가네가쯔 노보루(일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새 조선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 만나주신 일본의 인사들중에는 일조농업기술교류협회 회장이였던 가네가쯔 노보루도 있다.

일제가 패망한 뒤 조선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남아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들의 귀환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운동이 진행되고있었다. 당시 《재외부형구출학생동맹》의 한 성원이였던 가네가쯔

는 이 귀환운동에 참가하면서 점차 조선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자기의 소청을 말씀드릴 용단까지 내리게 되였다.

그가 이러한 용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마음속고민이 컸다.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씻을수 없는 원한만을 남긴 과거 일제의 죄행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그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 자기의 소청이 이루어지겠는지, 더우기 백두산의 호랑이로 명성을 떨치신 **김일성**장군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실가 하는 위구심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간난신고하여 38°선을 넘어온 가네가쯔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해방직후 조선에서 일본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있는 사실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

그가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그날은 주체35(1946)년 6월 3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일본에서 먼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그를 따뜻이 위로해주시며 그의 소청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안고있는 위구심도 풀어주시며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일본제국주의통치배를 반대하지 결코 일본인민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불행을 안고있는것만큼 북반부지역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고통을 리해하고있으며 그들의 귀국실현을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가네가쯔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 시간은 불과 15분가량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시간이 천금같은 귀중한 시간으로 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그는 저도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어쩌면 인품이 그처럼 높으실가. 어쩌면 그리도 따뜻하실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네가쯔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후 수많은 일본인들의 귀환이 시작되고 자기가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가 취해지는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무한대한 포옹력, 고매한 풍모와 높은 덕망에 매혹된 가네가쯔는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부터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되였으며 일조농업기술교류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노사까 산조(일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만나주신 일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개별인사들은 1 000여명을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제일 처음으로 만나주신 일본의 인사들중에는 노사까 산조도 있다.

노사까 산조는 일본공산당 대표로서 오래동안 국제공산당에 파견되여 사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중국 연안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적극 투쟁한 사람이였다.

그가 조선에 온것은 해방직후였다. 해방의 기쁨안고 모두가 떨쳐나 건국열의로 들끓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에서 그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커다란 감동속에 노사까 산조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력사의 그날은 주체34(1945)년 12월 21일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우신 명성높은 장군으로 높이 칭송하며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분한 평가라고 겸손하게 교시하시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온 노사까 산조를 비롯한 일본인사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일본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일량국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공산당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의 결심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자기 나라로 무사히 귀국할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도 취해주시고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헤아려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소탈한 인품과 다심한 인정에 끌리여 노사까 산조는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을뿐 아니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리였다.

오다까 요시꼬(일본)

전 일본참의원 의원이였던 오다까 요시꼬가 처음 조선을 방문한것은 주체64(1975)년 7월이였다.

그때 그는 일본자민당유지의원단의 한 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과 함께 불민한 지난날의 일로 하여 누구에게 말할수 없는 괴로움이 겹쌓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시기 그는 만주영화협회에서 리향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수로서 만주와 조선의 일본군주둔지들을 순회하면서 노래를 불러 침략자들의 열기를 돋구어주는 일을 하였던것이다. 조선을 방문하면서 그자신은 물론 함께 온 대표단성원들도 그의 과거생활을 로출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일본자민당유지의원단을 여러시간에 걸쳐 만나주시고 친히 만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좌중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다까를 바라보시며 지난날의 리향란이가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그의 얼굴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달아올랐고 어떻게 몸가짐을 하였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그는 죄지은 목소리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올리였다.

한편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알아보신단 말인가. 1～2년도 아닌 수십년전의 리향란이를 알고계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자신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도 만나뵈온적이 없지 않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당신의 이름을 당시 잡지와 영화를 통해 알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생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철학이 담긴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과연 어느 위인이 자기 생활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릴수 있는가. 흘러간 과거보다 현재가 더 귀중하다는 그이의 비길데 없이 너그러운 관용과 뜨거운 포옹력앞에 그는 저절로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순간 긴장해졌던 대표단성원들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어렸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꿰뚫어보시고 얼어붙었던 가슴을 대번에 녹여주시며 따사로움과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안겨주시는 위대하고 자애로운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깊은 어조로 그에게 아직 조선노래를 외우고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그는 민요 《도라지》를 외우고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대표단성원들이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노래를 한곡조 불러올리라고 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청이 나오자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박수까지 쳐주시였다. 오다까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라지》대신 일본민요를 부르겠다고 말씀올리고 인사를 하였다. 그는 너무도 흥분하였던 나머지 자기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시여 노래를 잘 불렀다고 치하해주시며 친히 그에게 잔을 권하시고 축배를 들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떠날 때에도 친히 한사람한사람 손잡아주시고 다음번에는 가을에 와서 금강산구경을 하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다까는 그처럼 자애롭고 인자하신 그이께 조선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고 떠나는것이 더없이 죄스럽기만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작별의 인사를 올리면서 후에 조선의 노래를 꼭 배워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친히 축배잔까지 찧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사무실에 모시고 언제나 그이를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다시 뵈옵게 될 그날을 그리였다. 그러면서 조선말로 노래련습을 매일같이 하였다. 그는 다시 조선을 방문한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말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드리였다.

오다까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때를 회상하여 쓴 글에서 자기는 아직까지 주석과 같이 그처럼 넓은 도량과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령도자를 만나보지도 못하였거니와 그러한 령도자가 있다는 말을 들

어본적도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세계가 우러러따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가네마루 싱(일본)

주체79 (1990) 년 9월 가네마루 싱이 조선을 방문하여 3당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귀국하게 되였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가네마루를 에워싸고 질문소나기를 퍼부었다. 기자들을 일별하고난 가네마루는 《정말 훌륭한 방문이였다. 아쉬운것은 너무 늦게 이번 걸음을 했다는 그것이다. 이자 어느 기자가 **김일성**주석을 뵈옵고 정말 눈물을 흘렸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고 그분의 인간상에 끌리여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인에게 매혹된것은 수치가 아니기때문이다. 내 비록 생의 말년을 살고있는 정치가이지만 **김일성**주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것이 정치가로서의 나의 마지막사명이다.》라고 흔연히 말하였다.

가네마루로 말하면 한때 내각부수상도 한바 있는 보수계거물로서 《군비증강론자》, 《매파》, 《헌법개정론자》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평양방문을 결심하자 일본의 우익반동계층은 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그의 생각을 돌려세워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러한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되였던것이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그를 두고 일본사람들은 《김 가네마루》라고 불렀다.

어느날 그의 사무실에 복면한 사나이들이 뛰여들었다. 그들은 가네마루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3당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평양을 찬양하는 활동을 일체 중지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때 가네마루는 나는 신의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어떤 놈의 총이나 칼에 맞아죽는대도 **김일성**주석과 맺은 신의만은 절대로 버릴수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당당히 맞섰다. 너무도 도고한 그의 기세에 위압된 복면의 사나이들은 비실비실 도망치고말았다.

가네마루는 생의 마지막까지 《**김일성**주석과 한길을 걷겠다.》고 한 자기의 맹세를 지켰다.

2. 유럽의 벗들

노비첸꼬(로씨야)

주체73(1984)년 5월 21일, 《씨비리의 수도》로 불리우는 노보씨비르스크에서는 세인을 감동시키는 화폭이 펼쳐졌다. 세기의 대성인으로 칭송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방문의 장정을 이어가시던 길에 이곳에서 노비첸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던것이다.

노비첸꼬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국제주의전사였다.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지 않고 심중에 새겨두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횡단하시는 길에 노보씨비르스크의 농촌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있던 그를 만나주시였다.

수십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 씨비리의 평범한 늙은이로 변한 노비첸꼬,

하지만 혈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의 붉은군대 군관을 대번에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반가우시여 노비첸꼬를 넓은 품에 한껏 그러안으시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과 씨비리벽촌에 후반생을 묻은 평범한 전쟁로병과의 상봉은 그야말로 사변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군중들은 그 광경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온 행성이 위대한 인간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 진함을 모르는 의리의 세계에 머리를 숙이는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살아온 경위와 가정형편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시고 세월의 이끼속에 파묻혀있던 그의 위훈을 하나하나 회고해주시였다.

노보씨비르스크에서 노비첸꼬와 헤여지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시고 그의 위훈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도 하나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모스크바에 체류하시는 기간에도 노비첸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을 마치신지 얼마 안되여 노비첸꼬와 그의 가족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노비첸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나섰던 대담무쌍한 영웅전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비첸꼬를 자주 조선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진정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고 끝을 모르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였다.

싸쥐 우말라또바(로씨야)

1999년 2월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인 싸쥐 우말라또바가 평양에 왔다. 그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축하의 인사를 올리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지방을 현지지도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 언제 평양으로 돌아오실지 알수 없었다.

조선체류일정이 불과 4박 5일이였던 우말라또바는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질수 있을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속이 타들었다.

우말라또바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거리전화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그를 만나주는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말라또바가 모처럼 시간을 내여 조선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는것과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그에게 전해주며 자신을 만나는것이 정 소원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오도록 하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말라또바와 그 일행을 위해 마련하여주신 특별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였다.

우말라또바일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자 그이께서는 우말라또바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해주어 고맙다고, 이렇게 먼곳에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우말라또바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특별비행기까지 띄우시여 자기의 소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의 가슴속 뜨거운 격정을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말라또바일행과 오랜 시간 담화를 나누신 후 그들을 식탁으로 이끄시고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손님들에게 감자음식과 관련한 자료들을 알려주시면서 음식을 많이 들라고 다정히 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부위원장에게도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다음번에 올 때에는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오라고 이르시였다.

우말라또바와 부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따뜻이 환대하여주시고 다시금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말라또바와 그 일행에게 베풀어주신 환대는 이뿐이 아니였다. 식사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경을 배경으로 기

념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그들을 이끄시였다. 그들은 꿈만 같은 행운에 감격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맵짠 날씨를 념려하시며 여기서는 이쯤한 추위가 보통이여서 자신께서는 괜찮은데 처음 오는 손님들은 추울수도 있다고, 춥다고 몸을 움츠러뜨리면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시면서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환대를 받고 귀로에 오른 우말라또바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기상과 신념도, 의지와 배짱도 꼭 백두산을 닮으시였다.》

울라지미르 쏠리노브(로씨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에 매혹되여 그이를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한 수많은 사람들가운데는 로씨야기술유리과학연구소 무한주식회사 총사장 울라지미르 쏠리노브도 있다.

쏠리노브는 한생을 과학연구사업에 바쳐온 유리기술공학자이다. 쏘련이 붕괴된 후 그는 참다운 사회적정의와 진리를 모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였으며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탐독하고 조선의 거창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사상리론이나 식견, 인격과 인간적풍모에 있어서 지구상의 그 어떤 령도자와도 비길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비범한 위인이심을 절감하게 되였다. 특히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오면서 그이의 천재성과 위대한 인간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되게 되였다.

그때의 심정에 대해 그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그이께서는 나와 우리 일행을 무려 55분간이나 만나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벗으로, 친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게 말씀하시는 천부의 재능으로 우리가 질문한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대한 넓고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 매혹된 나는 55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침내 담화가 끝나고 그이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와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나는 온몸이 해빛에 휩싸인듯 한 심정이였다.

김정일동지는 진정 태양과 같은분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그는 그이의 탄생 53돐에 즈음하여 수정공예 《주체사상탑》을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그는 이 선물의 재료로부터 내용과 형태에 이르기까지 깊은 뜻을 담아 성의껏 마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을 전해드릴것을 부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정공예 〈주체사상탑〉의 탑신을 세면으로 한것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따라 전진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의미하며 그 면들에 세로줄들이 새겨져있는것은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신 **김정일**동지의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의미합니다. 탑신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투명성을 보장한것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우리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조선인민과의 우의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후 쏠리노브는 연구집단의 공동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수정공예 《력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선물로 드리였다. 그들은 선물에서 태양과 그 해살을 받는 마치와 낫과 붓을 형상하고 그 주위에 수레바퀴를 놓았다. 여기서 태양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는것이고 마치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을, 수레바퀴는 력사를 의미하는것이다.

니꼴라이 랴쉔꼬(로씨야)

주체85 (1996) 년 어느날이였다.

이전 쏘련군의 장령이였던 니꼴라이 랴쉔꼬는 로씨야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당시 그는 85살의 고령이였다. 그는 자기가 무슨 영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으로 가는지 잘 몰랐다.

얼마후 대사관에 들어선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뜻밖에도 요란한 생일상이 그를 기다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해도 없이 생일을 맞는 그를 위하여 85돐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조선의 영접일군들로부터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북받쳤다.

《**김일성**동지!》

그의 부름은 헛갈린것이 아니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심장을 다 바쳐 칭송해야 할 위인이 있다면 그분은 조선의 **김일성**동지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군 하였다. 해방직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랑이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지고있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격정에 휩싸이게 했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뜻깊은 생일상앞에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위인흠모심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니나 안드레예바(로씨야)

로씨야의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나 안드레예바는 1991년에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을 창건한 녀성정치활동가이다.

가정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을 조직하고 직업적인 혁명가가 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혁명의 배신자들이 그에게 갖은 박해와 탄압을 가하는 조건에서 당건설과 활동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정치적신념이 견결하고 대담하며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강의한 성격과 도고한 자존심을 지닌 안드레예바는 자기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정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조선방문의 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여러차례나 만나뵙고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특출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조선을 방문한 니나 안드레예바가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뵈온것은 주체88(1999)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일행을 여러 시간이나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해주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명철하고도 사리정연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니나 안드레예바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에게 있어서 온갖 정신적고충을 대번에 씻어주는 명약이나 같았다. 그가 받아안은 행운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 이어 안드레예바를 만찬회에 초청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음식그릇을 당겨 그앞에 놓아주시며 많이 들라

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함께 왔겠는데 사망하였다니 정말 섭섭하다고 그의 쓰라린 마음속아픔까지 헤아려주시며 다심하고 뜨거운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를 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드레예바총비서가 명절때마다 축전을 보내왔는데 자신께서는 혁명동지인 안드레예바총비서의 축전을 깊은 관심속에 보았다고, 우리는 한배를 탄 동지이므로 생사를 같이하고 서로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

파란많은 생애의 우여곡절속에서 온갖 슬픔과 괴로움도 꿋꿋이 이겨낸 그였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믿음이 담겨진 이 부름앞에서는 끝내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보약까지 몸소 보내주시였다.

올레그 쉐닌(로씨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희세의 걸출한 령장으로, 세계정치의 원로로 끝없이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로씨야의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 리사회 위원장이였던 올레그 쉐닌도 있었다.

사회주의좌절이라는 엄혹한 현실앞에서 이전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의 중책까지 지녔던 그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지름을 쓰며 살아왔다. 바로 이러한 때 동방의 조선에서 비쳐오는 사회주의의 밝은 빛발이 그의 가슴속에 비쳐들었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밝히시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론증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구절구절 탐독해나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 식어가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활력을 받아 다시금 세차게 맥박치기 시작하였다.

커다란 기대와 흥분을 안고 조선에 온 그는 방문기간 사회주의붕괴의 탁류와 제국주의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였다.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수수한 잠바옷차림으로 순간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TV화면을 통해 뵈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로 하여 끝없이 설레이였다. 조선방문은 위대한 령장에 대한 그의 경모심을 한껏 부풀어오르게 하였고 그에게 사회주의리념의 진리성과 과학성을 깊이 절감하게 해주는 뜻깊은 나날이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일찌기 세계가 발견할수 없었던 사상의 힘을 발견한 령도자!

사상으로 력사를 개척하는 걸출한 령도자!

사상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승리를 담보해주는 령도자!

그분이 바로 **김정일**동지이시며 흘러온 사회주의운동력사와 오늘의 조선의 력사는 그이만이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할수 있고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종국적인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꼰스딴찐 뿔리꼽스끼(로씨야)

현세기초 로씨야에서 출판된 한권의 도서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도서의 제목은 《동방급행렬차-**김정일**동지와의 로씨야려행》이다.

이 책은 전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뿔리꼽스끼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격찬하여 쓴것이다.

뿔리꼽스끼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주체90(2001)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씨야 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뿔리꼽스끼는 국경도시 하싼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였다. 그이를 만나뵙는 첫 순간에 그는 그이의 인품에 매혹됨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로정을 수행하는 20여일 전기간 뿔리꼽스끼는 그이의 특출한 위인상을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과는 달리 로씨야방문을 야전식으로 하시였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시고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로씨야방문기간 뿔리꼽스끼는 위대한 장군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였다.

이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일정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날이였다. 뿔리꼽스끼는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가 주재하고 사업하는 하바롭스크에 모시고싶은 소망을 그이께 간절히 아뢰였다.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또다시 하바롭스크변강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자신께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동무들이 빨리 돌아가고싶어한다는것을 알고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뿔리꼽스끼의 소망을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그것은 우리의 의리에는 국경이 없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대외활동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후날 뿔리꼽스끼는 자기의 회상록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그이에 대한 로씨야인민들의 흠모의 정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였다.

《사람들은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온 그때를 꿈결에도 잊지 못하고있으며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하고있다.》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뿔리꼽스끼에 대하여 잊지 않으시였다. 그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몸소 그를 만나주시고 자신과 함께 각종 행사들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시였으며 환영연회도 마련해주군 하시였다.

주체91(2002)년 4월 뿔리꼽스끼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뿔리꼽스끼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로씨야에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고있는 뿔리꼽스끼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영광의 자리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 삼가 축배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축배를 받으시고 군대에 복무하다가 희생된 그의 형을 추모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면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크나큰 힘을 안겨주시였다.

따뜻한 정과 사랑을 기울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인간적매력과 위인적풍모에 뿔리꼽스끼와 그의 아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뿔리꼽스끼의 매혹과 존경심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주체91(2002)년 8월 뿔리꼽스끼는 로씨야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하싼역으로 달려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싼역에 나온 뿔리꼽스끼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와 나누신 악수와 포옹이 얼마나 진정에 넘친것이였던지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깊이 감동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한 기회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것이지 미사려구가 섞인 말이나 외교적인 행동이 중요한것이 아니다, 미사려구적인 말이나 외교적인 행동은 없어도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서로의 정이 통하고 생사운명도 함께 할수 있다, 자신께서는 뿔리꼽스끼와 같은 훌륭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긍지로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하기에 뿔리꼽스끼는 대통령전권대표라는 중임을 수행하는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격찬하는 도서 《동방급행렬차-**김정일**동지와의 로씨야려행》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참으로 지식수준이 높으신 박식가》, 《해빛처럼 따사로우신분》, 《위대한분》으로 높이 칭송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의 일군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군 하였다. 화려한 말은 아니였어도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진심으로 따르려는 그의 심중의 고백이 담겨져있었다.

미하일 슐만(로씨야)

전 쏘련군 군의 미하일 슐만은 조선이 해방된 직후 1년 남짓한 기간 평양에 체류한 일이 있었다. 그때 슐만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뵙는 순간 오래동안 의사로 일해온 슐만은 그이께서 너무 무리하시였던탓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못지 않게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며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사업에 전심하고계시였다. 혁명의 온갖 중하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어깨에 전부 실려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몹시 념려되여 슐만은 그이께 좀 쉬시면서 일하셔야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것을 걱정하시면서 병치료와 휴식은 안중에도 없이 순간도 일손을 놓지 않으시였다.

슏만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 고생을 달게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슏만은 저도모르게 그이의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여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였다. 귀국후 그의 마음속에 사무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뵙고싶은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체45(1956)년 어느날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살고있던 슏만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게 되였다.

좋은 사람은 잊을수 없는 법이라고 하시며 10년이 되도록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건강과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편지는 슏만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1956년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3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벽돌 한장 성한것 없이 파괴된 나라를 새롭게 일떠세우기 위해 일분일초가 귀하시였건만 10년전에 헤여진 한 외국의 벗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편지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의리의 세계는 이렇듯 고결한것이였다.

그는 그때의 감격에 대해 이렇게 토로하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해나가시는 수령으로서 한갖 이름없는 의사에 지나지 않는 나같은 사람에게 편지까지 보내주신다는것이 어디 상상이나 할 일인가.

우리 가족은 그때 **김일성**동지의 편지를 놓고 인간의 의리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이를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숱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자주 떠오르고 그이를 뵙고싶은 마음이 더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이의 분망하신 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앞서 감히 조선방문의 길에 오르지 못하였었다.

이런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를 조선으로 초청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귀중한 시간을 내여 그를 만나주시고 사랑과 정을 가득 부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만나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숱만은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참으로 의리가 깊고 인정이 많으신 위대한 인간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였다.

꼬르넬리아 빼우네쓰꾸(로므니아)

주체63(1974)년 로므니아의 평범한 녀의사 꼬르넬리아 빼우네쓰꾸와 그의 남편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꼬르넬리아 빼우네쓰꾸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에 와있으면서 조선인민을 성심성의로 치료해준 의사였다. 그는 기총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찾아다니며 무려 3 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었고 그중 270여명을 수술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꼬르넬리아의 헌신성과 국제주의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훈장과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잊지 않으시고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해주시였으며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다 돌아보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녀의사와 그의 남편을 만나주시였다.

20여년만에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뵈옵게 된 녀의사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로 달려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그는 존경하는 주석동지의 덕분으로 다시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평양시를 보고 주석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였는가에 대하여 절실히 느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의사의 말에 사의를 표하시고나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20여년만에 만났지만 멀리서도 모습을 알아보았다고, 당신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국제주의전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매우 훌륭히 수행하였다는것을 잊지 않고있다는 치하의 교시도 해주시였다.

녀의사는 감격에 겨워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들부부를 위해 오찬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음식을 권하시면서 그때 우리 나라에 와있다가 언제 귀국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답을 드린 녀의사는 존경하는 주석동지께서 전선을 지휘하시느라고 몸이 쇠약해지시였는데 의사로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과 우리 인민을 진실로 생각해준 20여년전의 전우를 다시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우, 그 값높은 부름앞에서 녀의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세계혁명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전우라고 불러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의사부부와 축배잔을 찧으시며 건강한 몸으로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란다고, 머무르는 동안 요구할것이 있으면 무엇이건 다 이야기하라고 이르시였다.

소탈하신 그이의 말씀에 어려움을 다 잊은 녀의사는 체류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조선에서 더 많은것을 보고싶다는데 대하여서와 조선의 고려의학을 배우고싶다는데 대하여, 혁명가극을 더 보고싶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마음껏 있으면서 보고싶은것을 다 보라고, 고려의학을 강의해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그의 모든 청을 기꺼이 수락해주시였다. 몸소 그들의 오후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함흥의학대학병원(당시)을 참관하게 된다는것을 아시고는 이제 대학병원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아직 우리 나라의 의학기술은 높지 못하나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높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담삼아 그 실례까지 들어주시였다. 그것은 흥남항에 와있던 그리스선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심한 화상을 입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함흥의학대학병원에 실려왔던 그에게 병원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하여주었다. 그렇듯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선원은 사경에서 구원되였다. 선원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가면서 자기는 조선사람들의 피와 살로 살아났다고, 자기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선의 사회주의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자기의 진실한 감정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녀의사는 자기의 일정까지 관심해주시며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속에 녀의사부부는 2주일동안이나 더 머물러있으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도 해당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여 녀의사에게 가극을 다 보여주었는가, 고려의학

강의는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 알아보시였고 돌아갈 때까지 섭섭치 않게 잘 대해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20여년만에 조선을 찾아온 녀의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우로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내였다.

이것은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이였다.

아나스따쏘브(벌가리아)

벌가리아의 아나스따쏘브는 평범한 교육자로 일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쏘피아에 있던 **김일성**학원에서 조선의 전재고아들을 맡아 돌봐주고 키워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벌가리아를 방문하시는 기회에 아나스따쏘브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가 발휘한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주체48(1959)년 그가 교육대표단 성원으로 조선에 왔을 때에는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아나스따쏘브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주체73(1984)년 6월 어느날 그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나라에서 또다시 만나뵙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벌가리아방문의 마지막날인것으로 하여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일정은 여느때없이 긴장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조인식을 비롯한 중요행사들이 맞물려져있었다.

하지만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가리아에서 꼭 만나보고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였다. 그들중 한사람이 바로 아나스따쏘브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67살이였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은 로인이 되여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있는 그의 지난날을 기억하고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이 어려움을 겪고있던 때 전재고아들을 10년간이나 말아키워준 그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시간이 긴박한 속에서도 그와의 상봉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흥분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달려온 아나스따쏘브와 그의 부인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아나스따쏘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쁜 행사일정속에서도 평범한 자기를 몸가까이 불러주신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며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나스따쏘브부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오늘의 상봉은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지만 사실상 한집안식구나 다름없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대해주시며 친히 축배잔을 부어주시고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아나스따쏘브부부와의 상봉은 한 나라의 령도자와 외국인들과의 외교적인 의례행사가 아니라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혈육이 만나 정을 나누는 단란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위인적풍모는 아나스따쏘브를 무한한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날 아나스따쏘브만이 아닌 온 인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인간사랑의 고결한 풍모를 가슴뜨겁게 목격하였다.

아나스따쏘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희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느끼게 되였다.

아나스따쏘브의 매혹의 감정은 그 이듬해 가족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뵈옵는 뜻깊은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분출되였다.

주체74(1985)년 4월 아나스따쏘브가족일행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을 받고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국가적인 행사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조선을 방문한 아나스따쏘브일가를 두차례나 만나주시고 오찬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송구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같이하려고 한다시며 친히 음식까지 권하시였다.

그이의 극진한 환대에 감동된 아나스따쏘브는 위대한 수령님께 친어버이를 만나뵙는 심정이라고 가슴속진정을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아나스따쏘브와 그의 일가는 조선방문기간 귀빈으로 떠받들리우며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았으며 돌아가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환송연회에까지 초대되게 되였다.

환송연회에서 당시 주조 벌가리아대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과거의 평범하였던 한 학교의 교장을 친히 초청해주시고 자신의 손님으로 환대하도록 하여준 실례는 세상에 보기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 깊이 느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나스따쏘브에게 있어서도 같은 심정이였다.

하기에 그는 자기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이 그처럼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따뜻이 만나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니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라고 격정을 터놓았다.

와씰까 니끼포로바(벌가리아)

벌가리아의 와씰까 니끼포로바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부모잃은 조선의 아이들을 벌가리아에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워주고 조선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준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상징이다. 그의 이름은 이미 조선인민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끝없이 흠모하여왔다.

언제인가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였던 또도르 쥡꼬브는 니끼포로바에게 당신은 나를 더 존경하는가 아니면 조선의 **김일성**주석을 더 존경하는가라고 물어본적이 있었다. 그때 니끼포로바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또도르 쥡꼬브는 나는 당신이 나보다 **김일성**주석을 더 존경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와씰까 니끼포로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으로 흠모하고 존경한 벌가리아인민의 딸이다.

그는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아득히 흘러간 1956년의 나날들이 떠오른다며 그때의 행복스럽고 감격스러운 나날들을 추억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벌가리아를 방문하실 때였다.

이미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심장에 새기고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기 나라 방문에 대한 소식을 듣자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벌가리아인민들은 꽃다발과 두 나라 기발을 흔들며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니끼포로바는 위대한 수령님께 열렬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은 장미꽃다발을 드리려고 며칠을 품들여 준비하였지만 끝내 그이께 꽃다발을 드릴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니끼포로바는 그저 목이 쉬도록 만세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를 따라 9월9일광장까지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군중들이 우뢰와 같은 환성을 터쳤다.

방송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울려나와 온 쏘피아시내로 울려퍼지였다. 그이의 말씀은 마치도 후더운 물줄기마냥 니끼포로바의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바로 이날 저녁 그는 행복하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벌가리아정부연회에 초대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번 기회에 꼭 축원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고 또다시 장미꽃다발을 정성들여 만들었다.

거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벌가리아는 장미의 나라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장미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장미꽃은 다른 나라의 장미에 비길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울뿐 아니라 그 꽃에서 짠 기름은 냄새가 특별히 향기로와 세계에서 제일가는 향료로 일러주고있다.

바로 이런 의의있는 꽃, 벌가리아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장미꽃을 아름답게 엮어 위대한 수령님께 꼭 드리고싶은 마음에서 니끼포로바는 정성껏 장미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연회장으로 달려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가리아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연회석상에 나오시자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니끼포로바는 누구에게 앞자리를 빼앗길세라 그이께 달려나가 향기그윽한 장미꽃다발을 드리면서 조선말로 《**김일성**장군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이의 건강을 축원해드리고싶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앞에 선 순간 흥분이 앞서 조선말이 잘 외워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그때 니끼포로바는 마치도 밝은 태양앞에 서있는것만 같은 무아경에 휩싸였다.

수년간 마음속으로 그리며 존경하던 위대한 수령님께 벌가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제손으로 직접 올린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벌가리아에서 제일 행복한 녀성으로 여겨졌다.

그날밤 그는 밤새 잠을 이룰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장미꽃다발을 드리는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시던 **김일성**주석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려오고 그이께서 꼭 잡아주신 따뜻한 손길의 체온이 다시금 느껴지는것만 같았다.

니끼포로바는 생애의 전 기간 자기 집의 제일 밝은 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살았다.

유럽에서는 가정들에서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을 가장으로 모시고 그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초상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날부터 그는 몸은 비록 그분께서 계시는 조선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심정에서 그이의 초상화를 자기 집의 가장 환한 벽면에 모시였다.

벌가리아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더불어 주체조선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사는 니끼포로바가정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자본주의가 복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사는것을 시비하는자들이 나타났다. 그때마다 니끼포로바는 **김일성**주석은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라고 긍지높이 말하며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는 특별한 향기를 풍기는 식물이 언제나와 같이 놓여있다.

그 식물의 향기가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한다. 벌가리아에서는 이 식물을 만년장수초라고 부르며 귀한 손님들에게만 준다고 한다.

니끼포로바는 이 만년장수초가 향기를 풍기는 계절이면 아침일찍 위또샤산정에 올라 장수초를 떠오군 하는데 그것이 그의 생활에서 하나의 습관처럼 되였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 그이께 장수초의 향기를 안겨드리고싶은것이 니끼포로바의 진정이였다.

오토 그로테볼(도이췰란드)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주체96 (2007) 년 5월 전 민주도이췰란드의 내각수상이였던 오토 그로테볼의 외증손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미술작품이 있다.

당시 조선을 방문하게 된 그의 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어떤 선물을 마련할것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토론중에 외할머니는 그들에게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력사이자 **김일성**주석과 오토 그로테볼사이의 친분관계의 력사이고 그로테볼일가전체가 **김일성**주석의 사랑을 받아안은 력사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선물로는 그로테볼일가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가보들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하였다.

전 민주도이췰란드의 초대내각수상이였던 오토 그로테볼은 정치인으로뿐 아니라 미술가로서도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여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가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묶은 《오토 그로테볼작품집》이 출판되였다.

그리하여 그로테볼가족은 위대한 장군님께 드릴 선물로 자기 집에 가보로 건사하고있는 오토 그로테볼의 미술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들이 선물로 마련한 미술작품은 옷토 그로테볼이 그린 《화구일식》으로서 그가 가장 애용하던 미술도구들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증손녀는 자기의 부모들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은 예술에서도 천재이시라고 하였는데 자기 가문의 가보로 되고있는 이 미술작품을 선물로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사실 오토 그로테볼가문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은 참으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난 직후 오토 그로테볼은 조선의 전후복구사업을 성의를 다하여 지원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영원히 상징하기 위하여 함흥시건설을 도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함흥시복구건설사업에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을 파견하면서 설계가인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를 함흥으로 보내였다. 그리고 1955년 12월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환영군중대회와 평양에서 열리고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0차회의 연단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토 그로테볼이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의 강화를 위하여, 조선에서의 전후복구사업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에게 함흥명예시민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오토 그로테볼사이의 친분관계는 이렇게 맺어지고 두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서거하였을 때에는 깊은 애도의 뜻이 담긴 조전을 보내시였다. 그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주체58 (1969) 년 5월에는 그의 부인과 함흥시건설에 참가하였던 그의 아들부부가 조선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특별비행기를 보내여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도이췰란드를 공식방문하신적이 있었다.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베를린을 떠나시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토 그로테볼의 아들 한스 그로테볼을

만나주시였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시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안해와 함께 함흥에 와있을 때에 태여났으며 지금은 건설기사로 일하고있다는 아들에 대한 소식도 물어주시였다.

한스 그로테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외활동을 벌리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였으며 이처럼 따뜻이 대해주며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동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에 갈 때마다 오토 그로테볼동지를 회상하게 되고 또 당신을 생각하게 된다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스 그로테볼에게 앞으로 우리의 전우로서 아들과 가족과 함께 자주 조선에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였으며 자신의 인사를 가족들에게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오토 그로테볼가문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계속 이어졌다.

주체83 (1994) 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한스 그로테볼과 그 가족들을 평양에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휴식을 하게 하라고 하신 교시를 잊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시였던 숙소에서 마음껏 휴식하면서 지낼수 있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스 그로테볼의 아들 틸 그로테볼의 건강과 치료정형에 대하여 수시로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귀중한 약재와 건강에 좋은 식료품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토 그로테볼동지와 그의 가문에 돌려주신 그 믿음과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였다.

루이저 린저(도이칠란드)

도이칠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는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쓰는 온갖 패륜과 패덕에 혐오감을 느끼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동경하며 정의와 진리를 찾아 세계를 방황하였다. 그는 일찌부터 히틀러파시스트를 반대하여 문필활동을 벌렸고 그로 하여 사형을 선고받은적도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필치가 예리하고 자존심이 강한것으로 하여 서방세계의 부리사나운 비평가로 이름을 날리였다.

그러던 그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발전모습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직접 목격하고 커다란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 모든 기적과 현실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주체69(1980)년 5월 현지지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조선을 방문한 루이저 린저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그를 위하여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그의 가슴아픈 인생사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선생을 만나는것을 같은 사상과 지향을 가진 전우들의 상봉으로 귀중히 여기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하고 분에 넘치는 말씀에 눈물을 모르며 강직하게 살아온 루이저 린저는 그만 북받치는 격정을 터뜨리며 흐느껴 울었다.

그후 그는 태양의 인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칭송하는 글을 써내는것을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 작가의 량심으로 간주하고 《조선방문기》의 원고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집필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인칭송의 글들을 련이어 써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그가 조선을 방문하도록 특혜도 베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그를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1982년 조선을 세번째로 방문한 루이저 린저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더 절감하게 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루이저 린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다시금 읽으면서 한번 만나뵈오면 다시 뵙고싶고 두번다시 만나뵈오면 영원히 그 품에서 떠나고싶지 않은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로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표해주실것을 간절히 소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친필을 남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보는 순간 루이저 린저는 온 우주를 받아안은 감정이였다.

인생의 황혼기에야 한생토록 갈망하던 위대한분을 만나뵈옵고 각별한 은정을 받아안은 루이저 린저는 그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너무도 아쉬워 《나는 우주를 안고가지만 마음은 이곳에 남겨두고 갑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며 따르는 루이저 린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가 네번째로 조선을 방문했을 때였다. 백두산에 오른 그는 진달래꽃다발을 엮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위대한 주석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깃든 백두산의 꽃이고 조선의 양양한 미래가 솟아오른 백두산의 꽃이며 김정숙녀사의 충성이 깃든 고장의 꽃입니다. 그런 꽃다발을 주석동지께 드리는 영광을 지녔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그는 《나는 주석을 받들다 죽겠습니다.》라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많고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형형색색의 정치가들을 만나보면서도 진정한 위인을 찾지 못해 그토록 모대기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심장의 고백을 터친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김일성**주석의 은혜는 대를 두고도 갚을수 없는것이기에 그이를 위해 한줄, 한글자라도 더 쓰다가 숨지는것이 나의 소원일뿐이다.》

문필로 인생의 봄을 맞이했고 문필로 황혼기도 맞이한 그는 여생을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도서를 집필하는데 바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계시므로 나는 인류의 미래를 확신한다.》

이것은 루이저 린저 한사람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였다.

힘멜 라이히츠부부(도이췰란드)

주체45(1956)년 도이췰란드를 방문하시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년대기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십년만에 제엘로브에 있는 골초브농업생산협동조합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합을 또다시 찾아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이곳 조합원들은 이른아침부터 마을어구에 모여 수령님을 모시게 되였다는 기쁨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합에 도착하시자 그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합회관에 들어서실 때였다. 빨간 장미꽃으로 무대쪽이 장식된 넓은 회관에서는 조선노래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의 선률이 은은하게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여 음악 한곡을 선택하여도 수천수만리 떨어진 머나먼 곳에서 조국인민들을 생각

하실 수령님의 뜨거운 심정을 헤아린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진심이 비껴있었다.

이때 한 로인부부가 위대한 수령님앞으로 다가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8년전 이 고장을 방문하시였을 때 조합관리위원장으로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힘멜 라이히츠와 그의 부인 프리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그들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부부는 위대한 수령님께 사진첩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드리였다. 그 사진첩으로 말하면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주체45(1956)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은것은 힘멜 라이히츠의 일생에서 잊을수 없는 영광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을 늘 꺼내보면서 그날을 회상하군 하였다. 4명의 손자에게 그날의 감격에 대하여, 조선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나를 감동시키고 잊을수 없게 하는것은 소박한 인민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랑이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인품과 덕망이 힘멜 라이히츠로 하여금 그날을 못잊게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조합을 찾아주신다는 소식은 그를 무한히 기쁘게 했다. 그는 정성들여 기념사진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6년 이곳을 방문하시였을 때 조합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사진, 농기계들을 돌아보시는 사진, 조합원들을 만나시여 담화를 하시는 사진 등을 사진첩에 정중히 모시였다.

기념사진첩의 첫장에는 《**김일성**동지께서 1956년에 골초브를 방문하신것을 기념하여.

1984년 5월 당신의 국가방문에 즈음하여 드립니다.》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힘멜 라이히츠부부와 함께 사진첩을 보시면서 감회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조합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세월이 근 세번씩이나 흐르는 기간 조합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존경심이였고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이였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것이였다.

회관에서는 조선노래 《밭갈이노래》의 아름다운 선률도 울리고있었다.

골초브조합에서 펼쳐진 력사적인 화폭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이 맑고 깨끗한 흠모심의 분출인것이다.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도이췰란드)

주체73(1984)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친선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도이췰란드에도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베를린시의 전반적건설정형과 살림집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시내의 주요거리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많은 가정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마르짠구역의 브르노 로이쉬네르거리에서 살고있는 공구제작공장 로동자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의 가정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집에 모신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가슴 한구석에는 걱정이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에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을 모신다는것은 례사로운 일이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것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마음을 다잡은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와 그의 가족은 위대한 수령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면서 인사를 정중히 올리였다.

인사를 받으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주인내외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가족은 몇명이나 되는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가, 아이들은 무슨 일을 시키려하는가, 국가적혜택과 방조는 어떤것인가 등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세쌍둥이가 있다는 주인내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세쌍둥이가 커서 학교에 다닐 때면 방학기간에 그들과 함께 조선에 와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세쌍둥이를 보자고 이르시였다.

주인내외가 세쌍둥이를 안고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번 안아보자고 하시면서 한 어린애를 받아안으시고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애의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주인내외에게 세쌍둥이를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로 잘 키우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이나 돌아보시고 인사말 몇마디 나누실줄로만 생각했던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는 한가정의 가장과 같이 집안형편을 물으시고 아이들의 장래까지 걱정해주시며 친부모이상으로 보살펴주시는 인자하신 모습을 뵈오면서 그이의 넓고 뜨거운 품에 안겨사는 조선사람들은 정녕 행운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이윽고 가정적분위기가 넘쳐나는 가운데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가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주인내외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배를 올리고 지성어린 기념품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가정의 행복을 축원하시면서 세쌍둥이에게 조선의 세쌍둥이들이 받아안는것과 꼭같은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영광을 받아안은 프랑크-페테르 슈뢰데르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하기에 그는 후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집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회억하며 회상실기에 이렇게 서술하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학생소년궁전과 회관들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주셨다는분, 탁아소와 유치원은 해빛이 잘 들고 제일 훌륭하게 짓도록 하시며 아이들속에 있는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신다는 위대한분,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는 자신께서 덮으시던 단 한장의 모포마저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유격전을 하는 천고의 밀림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였다는 어버이, 그러한분이시기에 총각삼태자에게는 나라에서 은장도를 선물로 주고 처녀삼태자에게는 금반지를 선물로 보내시며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시는것이 아닌가.

조선에서 세쌍둥이가 많이 태여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인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분이 바로 **김일성**주석이시다.》

렐리오 바쏘(이딸리아)

렐리오 바쏘로 말하면 생활의 시련속에서 인권의 열렬한 옹호자로, 반파쑈투사로 성장한 사람이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감정을 품기 시작한것은 이딸리아에서 출판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접한 후부터였다. 로작을 깊이 탐독하는 과정에 그는 자주

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뛰여난 풍모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끓어넘치던 렐리오 바쏘의 가슴속에서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결심이 굳어지게 되였다. 그가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에 보고자의 한 사람으로 나선것도,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민주세력들의 회의가 준비되던 때 그 준비위원회 성원으로 활약한것도 바로 이때문이였다.

그후 그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조선통일지지운동들사이의 련대성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창설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거되게 되였다.

이 나날 렐리오 바쏘의 머리속에서는 오랜 숙원이던 조선방문을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조선대표단 성원을 찾아가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곳에 있는 외국의 한 정치활동가의 소망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렐리오 바쏘가 서유럽과 같은 복잡한 정치환경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위업에 헌신하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활동해오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만나뵙고싶어하던 렐리오 바쏘의 소원은 주체67(1978)년 6월 그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기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국가방문한 아프리카의 어느한 나라 대통령과의 사업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던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렐리오 바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여 그를 만나주시였다. 렐리오 바쏘자신도 사연을 전해듣고는 놀라와하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렐리오 바쏘와 그 일행을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먼길을 오기에 수고했다고 하시며 건강은 어떠한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조선을 방문한 렐리오 바쏘와 일행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렐리오 바쏘는 그 첫 순간에 벌써 긴장하였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였다. 담화석상은 시종 화기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렐리오 바쏘와 그 일행에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방안에 대하여,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주시였으며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금언을 새겨듣는 렐리오 바쏘의 심장은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거창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투쟁의 법칙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스승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격정으로 하여 세차게 높뛰였다.

렐리오 바쏘가 후날 자기의 동료들에게 고백한것처럼 이날 그의 가슴을 두드린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예지와 힘을 지니신 그렇듯 위대하신 분을 일찌기 만나뵙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작별할 시각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렐리오 바쏘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년로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것이며 통일의 그날은 오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밖에까지 나오시여 렐리오 바쏘를 바래우시며 오늘 선생과 친우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좋은 계절에 부인과 함께 다시 조선에 오라고, 그때에는 긴 시간을 내여 담화할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렐리오 바쏘와 대표단일행이 조선의 여러곳을 더 돌아보며 명승지에서 휴식의 한때도 보내도록 보살펴주시였다. 렐리오 바쏘가 금강산에 가게 되였을 때에는 언제인가 자신께서 드시였던 건물에서 바라보는 외금강의 풍치가 매우 인상적이였다고 회고하시며 그가 그곳에 들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렐리오 바쏘는 자기의 체류일정을 뜻깊게 보낼수 있었다.

그후 렐리오 바쏘는 위인의 사랑속에 백배해진 투지를 안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의 강화발전에 자기의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던 렐리오 바쏘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시며 그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해주도록 하시였다. 한편 그의 유가족에게 보내신 조전에서 렐리오 바쏘를 저명한 정치활동가, 자유애호투사로 불러주시며 정의와 민주주의, 조선의 통일을 위한 위업에 남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그처럼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고도 부족하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렐리오 바쏘가 없이 새해를 맞을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가족이 조선의 향취를 언제나 느낄수 있도록 선물명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뜻깊은 선물이 전달되던 날 렐리오 바쏘의 부인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렐리오 바쏘와 뜻을 같이해온 그의 벗들은 고인의 가정에 돌려진 각별한 은정을 목격하면서 어찌하여 조선을 다녀온 수많은 나라의 정치활동가,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위대성에 그처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탄복해마지 않는지 그 까닭을 격정속에 절감하게 되였다.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마우로 바엘리(이딸리아)

2011년 12월 17일, 이날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준 비애의 날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수많은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조전과 화환을 보내여왔다. 세계 여러 나라 주재 조선대표부들을 찾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한 외국의 벗들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 수많은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비통한 심정을 누를길이 없어 이딸리아주재 조선대표부를 매일과 같이 찾고찾으며 평양시간에 맞추어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한 인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와 이딸리아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리사회 리사장 마우로 바엘리였다.

너무도 뜻밖의 비보가 전해진 그날부터 발로리는 자기 사업을 전폐하다싶이 했다.

그런가하면 바엘리는 가정에서 애도기간을 따로 정하고 조선시간에 맞추어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였다.

그러나 상실의 아픔을 가실길 없어 매일과 같이 자국주재 조선대표부를 찾고찾는 그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추모의 인사를 올리기를 그 몇번,

하건만 태양을 잃은 절통한 심정만은 도저히 누를길이 없었다.

조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의 영결식이 진행되던 그날에도 그들은 또다시 조선대표부를 찾아왔다.

발로리는 지금은 조선시간으로 12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는 가장 슬픈 날이다, 그이와의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는 평양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또다시 대표부를 찾아왔다고 하였다.

한편 바엘리는 지금 시간은 조선시간으로 12월 28일 0시이다, **김정일**각하와 영결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토록 애타게 그리며 그이의 초상화앞을 좀처럼 떠날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조선대표부일군들의 눈가에서도 뜨거운것이 쏟아져내렸다.

하다면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어떤 인연을 맺고있기에 그렇듯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것인가.

발로리가 조선을 처음으로 찾아온것은 주체64(1975)년 1월이였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을 위한 유럽위원회가 결성된 기쁨을 안고 조선을 방문하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름있는 정치학자로서 세계 수많은 나라의 고위정객들과 대상하면서도 언제 한번 자존심을 굽힌적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였건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첫순간부터 그이께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지니신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발로리는 그때로부터 수십차에 걸쳐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그 나날 또 한분의 위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 경축행사가 진행되던 주체77(1988)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겸허하게 받으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그 짧은 순간에 발로리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였다.

태양과도 같은 환하신 미소, 열렬한 인간애가 어린 안광, 정녕 그것은 친근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체취였다.

그 소중한 추억을 안고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그리던 발로리는 1994년의 비애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을 두번째로 만나뵙게 되였다. 보통때도 아닌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그 시각,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은 크시였건만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과의 친분관계가 남달리 두터웠던 그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발로리의 가슴속에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더욱 뚜렷이 새겨졌다.

허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발로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뜨거운것인지,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순결무구한것인지를 다는 알지 못하고있었다.

주체86(1997)년 1월 어느날이였다. 발로리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생일 57돐을 축하해주시며 몸소 축하연도 마련해주시고 자신의 친필존함이 새겨진 생일선물까지 보내주

시는것이였다. 그 선물은 다름아닌 그의 어머니 에밀리아 발로리의 조각상이였다.

모자간의 정을 소중히 여기시여 이 세상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정의 세계, 그 웅심깊은 사랑앞에 발로리는 끝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99(2010)년 1월 발로리의 생일 70돐이 되던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이딸리아에까지 일군을 파견하시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화려한 꽃바구니와 희귀한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세계에 이름을 날린 명인도 아닌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한 자기에게 거듭거듭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발로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사랑으로 인간세계를 가꾸시는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달리 부를수 없는 인류의 태양이시다.》

바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체81(1992)년 어느한 대표단의 성원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던 바엘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자마자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과 위인적풍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조국에 돌아온 그는 그때의 흥분을 안고 도서《**김정일**각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집필하였다.

그는 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쓰면서 이런 위인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만나뵈올수록 저도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안고 바엘리는 조선방문의 길에 자주 올랐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신고하고있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아버지의 병치료에 쓰라고 인삼을 비롯한 귀중한 보약들을 보내주시였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뜨거운 사랑앞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인간사랑의 화신이시라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과 그들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이딸리아에서부터 조선까지는 멀고먼 거리였건만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인간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조선은 가장 가깝고 친근한 나라로 되였다.

친부모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걸음걸음 보살펴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이 너무도 고마와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한생의 스승으로, 어버이로 믿고 따르리라 결의다지였다.

이런 사연을 안고있는 그들이였기에 매일과 같이 조선대표부를 찾아와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앞에서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던것이다.

삐에르 부도(프랑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견인력과 감화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부르죠아철학가들까지도 그이의 로작에 담겨진 백과전서적인 내용에 매혹되여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로 되였다.

그러한 사람들가운데는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교수, 박사 삐에르 부도도 있었다.

삐에르 부도로 말하면 부르죠아철학가,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 그리고 희곡작가로서 프랑스철학계와 문학계에 널리 알려지고 《프랑스인

물사전》에도 올라있는 사람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부르죠아철학에 대한 신념은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인정되여있었다.

그러던 그가 주체사상에 공감하게 되였고 주체72(1983)년 9월에는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다.

경치아름답고 공기좋은 어느한 호수가의 숙소에 려장을 푼 그는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문밖에 나서는 일도 별로 없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탐구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저작 탐독에 모든 시간을 깡그리 바치고있었다.

그가 특별히 매혹을 가지고 읽고 또 읽은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였다.

하지만 그는 주체사상의 불멸의 총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어떻게 나오게 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은 다는 모르고있었다.

주체76 (1987) 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한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한 큼직한 책을 하나 써서 세상사람들에게 선물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주체사상을 정식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바로 그 일을 장군님께서 훌륭히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정식화는 수령의 현명한 후계자만이 할수 있다고 하시며 맑스나 레닌도 충실한 후계자를 만났지만 자신께서는 정말 훌륭한 후계자를 만났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계로 정립한것도 만점이며 매 구성체계를 론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지금까지 많은 철학론문들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였지만 만점으로 평가한 론문은 **김정일**동지의 론문이 처음이라고 하시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위인들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느 사상가나 위인들도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기초한 인간해방, 사회해방에 대한 완성된 학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그이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될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충실성과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불면불휴의 철학적인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주체사상의 진수를 터득하는 과정에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사람위주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을 알게 된 삐에르 부도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철학의 진정한 대가는 조선의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다. 주체철학이 있음으로 하여 인류는 자기의 참다운 철학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어제날 부르죠아철학가였던 삐에르 부도의 심장속에 자리잡은 억센 신념이였다.

주체사상은 그에게 삶의 희열을 주는 생명소로 되였다. 삐에르 부도가 일본의 한 학자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플라톤의 학설과 그를 계승한 일련의 그리스도교적인 학설들은 우리 서양인들에게 끝없는 번민만을 가져다주었지만 주체사상은 인간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고 확신에 넘쳐 대답하였다.

그가 조선방문도중 자기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빠리의 여러 종합대학강의실들이나 연단에서 수백, 수천의 청중들을 대상하여 강의만 해오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리론과 주장을 설교할줄만 알던 내가 오늘은 학생의 기분으로 주체사상을 배우고있다. 어떤 때에는 유럽로학자로서의 관록과 체면도 잊고 조선의 젊은 교수들에게 주체철학에 대한 해설강의를 청하기도 한다.…

나는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건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의 량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려거든 뿌리깊이 남아있는 유럽적거만성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집어던지고 조선에 와서 주체사상을 배우라.》

그는 《프랑스꿀띠르》방송과의 회견때에도 조선에 가서 새로운 세계, 인류의 리상향을 발견하였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삐에르 부도의 격찬에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매혹과 열렬한 흠모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한번은 그가 조선방문도중 이전에 앓았던 병이 도진적이 있었다.

그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을 찾아온 손님이고 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자로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인데 잘 치료하여 병을 고쳐주자고 하시며 필요한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삐에르 부도는 40여일간 최상의 의료기술과 정성어린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의 고질적인 병을 완전히 고치게 되였다.

그는 그때 에펠탑을 자랑하는 자기의 조국 프랑스도 이런 혜택은 안겨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하기에 삐에르 부도는 자기 체험과 목격의 총화로서 동료들에게 에펠탑우에 올라서서 세상에 대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령도의 천재이시며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소리높이 웨치고싶다고 말했다.

서방의 코대높은 철학가였던 삐에르 부도의 극적인 방향전환, 이것은 그대로 주체사상의 감화력에 대한 하나의 산증거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설적위인상이 낳은 수많은 일화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크리스티 밀로(프랑스)

주체78(1989년) 2월 25일 프랑스조선연구협회가 성대한 행사를 조직하였다.

이름있는 학자, 사회활동가들이 참가한 행사에서 프랑스조선연구협회 성원들은 조선학자대표단에 자기 나라의 유명한 녀류화가 크리스티 밀로가 정성담아 그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수령님께 선물로 전해드릴것을 정중히 제기하였다.

크리스티 밀로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초상전문화가였다. 서방출판물들과 미술계의 인사들은《크리스티 밀로가 그린 초상은 감정과 미의 영원한 기념으로 된다.》라는 말을 자주 쓰군 하였다. 그만큼 그의 명성은 높았다.

그는 프랑스예술가협회 회원이였으며 유럽문예부흥기의 명작인 《몬나 리자》를 비롯한 예술작품수복의 특권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자기 명예를 두고 자부를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지 자기의 이러한 긍지감이 허물어지는것 같은 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의 심중에 일어난 파문은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 대하여 알게 된데서 오는것이였다.

《지구의 한끝에 있는 조선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다.》

《조선에는 위대한 철학이 있고 위대한 현실이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와 위대한 인민이 있다.》…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속에서 연방 튀여나오는 목소리들은 그의 조용하던 마음의 호수에 끊임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 위대한 **김일성**주석…

호기심과 모대김이 엇갈린 그의 마음은 조선에 대한 방문결심으로 굳어졌다.

조선방문은 그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그는 조선방문소감에 대하여 후날 벗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방문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현대조선, 그것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고 주석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이다.》

조선방문은 그가 초상전문화가로서 새로운 포부와 리상을 안고 창작활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 누구도 **김일성**주석의 영상을 작품에 모시기 전에는 자신을 명화가로 자부할수 없다.

이것이 그의 결심이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매혹과 존경심에 이끌려 그이의 초상화를 창작하게 되였다. 두달에 걸친 노력끝에 초상화가 완성되였다.

그와 프랑스조선연구협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초상화작품과 함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프랑스조선연구협회는 여러차례에 걸친 귀국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크리스티 밀로부인이 창작한 **김일성**주석의 초상작품을 통하여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감정을 표현할수 있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녀류화가가 창작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는 인류의 태양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환희의 분출이였으며 위대한 스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주적인간의 참된 인생행로를 걸어나가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의 발현이였다.

루이 떼르노와르(프랑스)

주체69 (1980) 년 9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국회 명예의원이며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인 루이 떼르노와르를 만나주시였다.

루이 떼르노와르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일본자유민주당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오찬회를 하실 때 있은 일을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찬회도중 담배를 피우신적이 있었다. 대표단의 한 성원이 주석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문의의 말씀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담배는 조선의 유명한 성천담배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주석께서는 만일 조선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없다면 중국의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쏘련의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라고 또다시 물음의 말씀을 올렸다. 일본대표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에 대해 자주 들어오군 하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담배문제를 통해서도 수령님의 자주리념의 진수를 알고싶은 충동이 일었던 것이다. 자기 조국 일본이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도 받고싶었다.

그의 질문에 너그럽게 웃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중국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것이며 쏘련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것이라고, 우리 조선담배를 피우겠다고, 조선에 담배가 없을리가 있는가고, 다른 나라에서 담배를 다 심는데 우리라고 왜 못 심겠는가고, 조선에 담배가 정 없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 일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루이 떼르노와르에게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매개 나라가 자주성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나가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힘있게 벌릴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무심히 받아안을수 없는 혁명의 고귀한 진리가 통속적인 이야기속에 맥박치고있었다. 하기에 루이 떼르노와르는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감사전문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주석각하께서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저는 참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명심하였습니다. 뻘럭불가담국가의 수반이신 주석각하께서 반드시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있습니다.》

한스 클레카츠키(오스트리아)

언제인가 전 오스트리아사법상 한스 클레카츠키는 조선을 방문하고 자기의 소감을 글로 써내여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나에게 그이는 어떤분이신가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에게 **김일성**주석은 한번 만나뵈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고 언제나 따르고싶은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해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정미에 완전히 매혹된 그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그는 유럽의 저명한 교수, 박사들과 함께 유럽지역에 주체사상연구학회를 결성하고 토론회들을 조직진행하였다. 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항상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워하였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되새겨보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그를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주체75(1986)년 9월 클레카츠키가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을 향해 떠났을 때였다. 도중에 잠시 조선에 들린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오찬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클레카츠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였다. 보쌈김치도 몸소 권하시며 친절히 이야기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이 특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오찬이 끝난 후 해마다 한번씩 우리 나라에 와서 서로 만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클레카츠키는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석각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클레카츠키는 이날의 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뜨거운 인간애와 인정미를 지니고계십니다. 사람을 참인간으로 되게 하는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애와 인정미이며 그것은 곧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향기에

반하여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인간애와 인정미, 인간향기는 참으로 뜨겁고 숭고한것이여서 만사람을 매혹시키고있으며 언제나 그이를 경모하고 따르게 하고있습니다.》

한스 렉사(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종합대학의 한스 렉사는 철학교수로서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열심히 탐독해왔다. 이 과정에 그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며 그이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싶어하는 대학교직원들의 절절한 심정을 함께 담아 자기 손으로 도안한 인스브루크종합대학창립 300돐기념메달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한스 렉사는 며칠동안 심혈을 기울여 끝내 메달의 도안을 완성하였고 유능한 기술자에게 부탁하여 메달을 품위있게 제작하였다.

대학창립을 상징한 기념메달은 이렇게 태여났다.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사상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대학에서는 인스브루크종합대학창립 300돐기념메달을 위대한 장군님께 맨 처음으로 드리였다.

이때부터 대학에는 세계사회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높은 인사들에게 이 메달을 수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세워졌다.

고메스(뽀르뚜갈)

뽀르뚜갈의 고메스로 말하면 군참모장, 대통령경력을 가진 관록있는 정치인이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침략적인 공세작전들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강철의 령장으로 우러러 흠모하여왔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온것은 주체70 (1981) 년 7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오랜 친구를 만나는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공로도 평가해주시고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답을 주시였다.

주체71 (1982) 년 4월에 고메스가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이젠 구면친구로 되였는데 조선에 자주 오라고, 인민을 위하여, 유럽의 자주화를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화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자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뵈오면 뵈올수록 군복과 함께 한생을 살아온 무뚝뚝한 군인출신인 고메스의 심장에 지펴진 매혹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비한 친화력에 온넋이 끌린 고메스는 《**김일성**주석은 인덕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인이시다.》라고 진정을 고백하였다.

그가 주체사상신봉자로, 조선통일지지자로 된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모심이 있었다.

마리 루이즈 모에랑(벨지끄)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3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사단성원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가운데는 벨지끄녀성법률가인 26살의 마리 루이즈 모에랑도 있었다.

어버이심정으로 조사단성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속에서 모에랑을 알아보시고 그의 상처에 대해서 다정히 물으시였다.

모에랑은 조선에 와서 야밤에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시고 유능한 의사를 붙여 그의 상처뿐 아니라 본래 그가 가지고있던 다른 질병도 말끔히 고쳐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던 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정넘친 물으심에 어려움도 잊고 이제는 상처도 다 아물고 아무일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에 와서 부상당한것은 싸우는 조선인민을 조금이나마 도와나섰다는 증거로도 되고 후날 영원한 추억으로도 될것이라고 명랑하게 말씀드렸다.

그러는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잊지 않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담화시간도 어느덧 많이 흘러 그들이 떠날 시각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모에랑과 조사단성원들을 바래워주시면서 당신들이 조선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기 바란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만사람을 순간에 매혹시키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그는 후날 자기의 글에서 《그날에 받은 감동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기에 조선인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라고 썼다.

쥬르망 뻴론(모나꼬)

1990년대말부터 유럽의 대도시들의 미술전시장들에는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졌다.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영생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금 뵈옵는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리고 태양상을 그린 화가에 대해 알고싶어하였다.

그러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다름아닌 모나꼬의 청년화가인 쥬르망 뻴론이다.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이며 초상전문화가인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로부터 많은 그이의 태양상을 작품에 담아 유럽인민들속에 명화가로 찬양받았다.

당시 뻴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있던 뻴론은 프랑스의 빠리대학을 나온 후 독자적인 창작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인차 자기의 개성을 살려 초상전문화가가 되였다. 력사발전에 공헌한 위인들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후세에 남을수 있는 교본을 만들자는 시도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만을 거듭하게 되였으며 우울과 번민으로 보낸 날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때 그는 조선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이미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던 그는 조선에 한번 가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러던 뻴론은 뜻밖에도 자기가 바라고바라던 소원을 이루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개막행사에 참가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순간 위대한 주체사상에 매혹되여 조선의 **김일성**주석께 감사를 드리고싶다던 가이아나와 인디아 그리고 유럽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민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 자애로운 미소, 빛나는 예지의 눈빛…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수가 없었으며 어느새 자기의 손에 화필이 쥐여졌는지 몰랐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가슴속에 새기고새기며 자기가 지닌 행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였다.

평양축전의 나날 뻴론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보았고 아름다운것을 느꼈으며 자기 인생의 귀중한것들을 체험하였다.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알고저 여러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위인상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을 보았다. 세계의 명망높은 정치가, 학자들은 저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칭송하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고 세

계 여러 나라들에는 그이의 존함을 모신 거리, 학교, 도서관들이 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삘론의 감동을 자아낸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를 선물로 올렸다는 사실이였다. 여기에서 큰 충동을 받은 그는 자기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작품을 창작하리라 결심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가슴속깊이 새긴 그는 수령님의 초상작품을 창작하는데 달라붙었다.

그러나 위인의 참모습을 꾸밈없이 그려낸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작품을 그린다는것을 알고 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찾아와 진심어린 방조도 주고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들도 가져다주었다. 한편 삘론은 자신이 직접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뵈온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더 많은것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덧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속에서 《태양을 그리는 화가》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의 동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초상작품들이 하나, 둘 완성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를 고무격려하였다. 그럴수록 그의 최대의 소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주체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였던것이다. 하늘이 낸 위인도 가시는가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던 그의 가슴속에는 태양과 같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안겨왔다.

유럽의 주체사상신봉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애도모임과 여러 조의행사에 참가하고난 뻴론은 자기의 화실로 들어갔다. 찬란한 태양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싶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뻴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여러점의 초상작품을 완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의 모습을 혁명력사의 화폭속에서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가 창작한 초상작품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되여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내놓게 되였는가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명성은 빠리는 물론 런던, 암스테르담과 본으로 옮겨갔고 온 유럽이 아는 명화가로 이름날리게 되였다.

유럽땅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그려 명화가로 된 쥬르망 뻴론, 그의 명성은 특출한 재능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절세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탄복하여 세계인민들에게 그이의 위인적풍모를 널리 선전하려는 그의 불타는 노력의 결과였다. 하기에 뻴론은 자기를 축하해주는 동료들에게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하시기때문에 오늘과 같이 명화가로 될수 있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그렇다. 이름없던 유럽의 화가 뻴론이 세계적인 명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깊이 탄복한데 있다.

3. 아프리카의 벗들

와일 바라카트(에짚트)

주체83 (1994) 년 11월 중순 평양친선병원으로는 뜻밖의 사고로 중태에 빠진 외국인이 실려왔다. 우리 나라 주재 에짚트대사관 성원이였던 와일 바라카트였다.

인체내 중요장기들이 심한 손상을 입은것으로 하여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있던 와일 바라카트를 두고 오랜 기간 의료부문에서 일해온 의사들도 수술칼을 들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머나먼 에짚트에서 달려온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의 정상을 보고는 모든것을 단념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사경에 처한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10여명의 유능한 의사들로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지고 최신의료설비들과 진귀한 약품들이 아낌없이 돌려졌다.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소생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치료를 하였다. 그 모든 정성이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한달나마 생사기로에서 헤매던 그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였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겨낸다는것을 옛 신화로가 아니라 다름아닌 조선에서 현실로 직접 체험하게 된 와일의 어머니와 대사관성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와일의 어머니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끝없는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 크나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이십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퇴원하던 날 와일 바라카트는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한 자기를 위해 그토록 마음을 써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이렇게 자기의 격정을 터뜨리였다.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의 사랑속에 조선에서 두번다시 태여났습니다. 지금 나의 몸에는 조선동지들의 피가 흐르고있습니다. 조선은 에짚트와 함께 나의 조국이며 평양은 까히라와 함께 나의 고향입니다.》.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또고)

주체63(1974)년 9월에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제일 부러워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경제건설성과와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재능,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가 아니였다. 그에 비할바없이 더 크고 소중한것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고 그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령과 인민간의 혼연일체였다. 수령은 인민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인민은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화목한 대가정의 모습, 그는 진실하고 격동적인 그 모습을 조선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고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앞에서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짓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보면서, 수령과 당을 목숨으로 사수하리라고 억척같은 맹세를 담은 인민군구분대의 구호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수령을 따르고있는가를 가슴사무치게 느끼였다.

그는 조선에 와서 보고 느낀 이 감정이 더없이 소중하였다.

또고대통령의 이러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지방참관에 함께 동행도 해주시면서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고,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수령의 유일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있다고 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의 역할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고있는 대통령에게 수령은 혁명대오안에서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고, 군대도 마찬가지이라고, 지휘관이 우유부단하면 전사들의 기분상태도 나빠지고 전투에서도 승리할수 없다고, 지휘관은 전사들속에서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차근차근 교시하시였다.

천금같은 그이의 가르치심은 정치적독립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을 위한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대통령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는 조선방문을 마치고 떠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나는 각하께서 가르쳐주신 경험과 권고의 말씀을 귀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우리 인민을 이끌고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세계의 국가수반들이 공인한 위대한 정치원로, 탁월한 스승이시였다.

삼 누죠마(나미비아)

주체75(1986)년 6월 11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을 방문한 삼 누죠마를 단장으로 하는 나미비아의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을 또다시 만나주신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끈질긴 반동공세속에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억세게 싸우고있는 삼 누죠마를 비롯한 나미비아의 혁명전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히 연회까지 마련해주시면서 그들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삼 누죠마는 나미비아인민의 전위부대인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창건하고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던 정치가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스승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실것을 결심하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기 시작한것은 오래전이였다. 그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무장투쟁에서 시련과 고난이 앞을 막아설 때면 언제나 평양으로 달려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군 하였다.

바로 이날도 그런 날들중의 하루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삼 누죠마에게 나미비아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 미제의 위협공갈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흑인들이 백인들의 리용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깜빠니야를 벌릴데 대한 문제, 나미비아의 실정과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잘 타산한 기초우에서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을 벌리면서 적들에게 된타격을 가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광범한 대중을 민족해방투쟁에 조직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치심과 오랜 세월에 걸치는 변함없는 정치군사적지원이 있어 삼 누죠마는 적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억세게 싸울수 있었으며 그처럼 바라던 독립의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독립후 대통령이 되여 고위인사들로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조선을 방문한 삼 누죠마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주석동지께서 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미비아는 아직도 아프리카대륙의 유일한 식민지나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김일성**주석동지는 우리 나미비아인민의 스승이시고 은인이십니다.》라고 말씀올렸다.

라벨로쏜 마하쌈뽀 오르땅스(마다가스까르)

녀성인 전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라벨로쏜 마하쌈뽀 오르땅스가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방문길에 오른것은 주체66(1977)년 9월이였다.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심이 그로 하여금 조선을 찾아오게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자기 나라 대통령의 자녀들은 물론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평양길에 오른 그의 마음은 격정으로 설레이였으나 한켠으로는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어린것들을 데리고가는것이 어지간히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대양건너 먼길을 려행하여 조선에 찾아오는 오르땅스일행이 념려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특별비행기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당시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뜻밖의 사실에 접한 그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절세위인의 사랑어린 특별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무사히 도착한 그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적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하늘길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어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오르땅스와 그의 일행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즐겁게 지낼수 있었다.

오르땅스는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인간에 대한 고결한 사랑과 덕망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그러던 10월 어느날 그는 일행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새옷을 입고 그이의 저택에서 수령님을 만나뵙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꿈결에도 바라던 평생소원이 풀린 바로 이날 그는 자기들을 친혈육처럼 따뜻이 대해주시며 거듭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간미에 완전히 매혹되게 되였다.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 일행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정녕 태양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크나큰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때로부터 6년후인 주체72(1983)년 7월 중순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대표단을 이끌고 두번째로 조선을 방문한 그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이날 그는 6년전이나 다름없는 친어버이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였으며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위대한 현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후날 그는 《조선의 높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높이!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인간사랑의 정치가 낳은 유일무이한 높이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고 깨뜨릴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힘의 높이이다!》

에밀레 똠빠빠(기네)

주체53(1964)년 9월 어느날 평양으로 향한 어느한 렬차에는 기네공화국 국립방송국대표단 단장인 에밀레 똠빠빠(당시 기네전국공보위원회 위원장)가 타고있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조선을 방문하게 된 그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몸에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해열제를 먹고 좀 나아지는것 같아 그는 평양에 도착한 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환영연회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수그러든줄 알았던 병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연회가 끝난 후 겨우 숙소에 돌아온 그는 더는 견딜수가 없어 아픔을 호소하였다. 의사들이 달려와 진찰을 하였다. 결과는 매우 심각하였다. 병세가 생명을 위협하고있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능한 의사들을 총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조선의 관록있는 의학박사들의 참가밑에 똠빠빠를 구원하기 위한 의사협의회와 치료가 진행되였다. 장시간의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였다. 드

디여 똠빠빠는 정신을 차리게 되였다. 조선의사들은 물론 그의 소생에 대해 비관하며 맥을 놓고있던 대표단성원들도 환성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똠빠빠가 정신을 차리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빨리 회복시키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친히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똠빠빠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빨리 회복시키라는 과업을 주시였다고 한다. 한 나라 국가수반이 평범한 외국인의 병에 대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선의 벗들은 수술을 할 때에는 물론 그후 치료기간에도 50여차례에 걸쳐 나에게 수혈해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에 의하여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이던 똠빠빠는 마침내 구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신선한 과일과 식료품도 보내주시였다.

주체53(1964)년 11월 30일, 이날은 똠빠빠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방에 들어서자 걸음걸이부터 유심히 살피시고나서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너무도 갑자기 차례진 영광에 똠빠빠는 목이 메여 인사말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술자리도 만져보시고 수술자리가 결리지 않는가고 물으시며 똠빠빠의 건강을 놓고 여러모로 마음을 쓰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어려운 수술을 용케 했다고, 국제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완쾌된 다음 더 있으면서 휴식도 하고 명승지들과 고적들도 돌아본 후 천천히 귀국하라고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똠빠빠의 두볼로는 격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이국에서 치료를 받는 자기가 외로와할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마음을 쓰시고 또 만나주시여서는 완쾌되여가는 모습을 보아주시며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였다.

대표단단장으로 조선에 왔다가 급병에 걸려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만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그는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똠빠빠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주체53(1964)년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1965년 설맞이공연에 그를 초대해주시였다.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똠빠빠에게 걸을수 있으면 쉬염쉬염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라고 다정하게 이르시였다.

그이의 각별한 관심속에 똠빠빠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였고 조선혁명박물관 등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조선예술영화도 관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똠빠빠의 귀국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완치된 똠빠빠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비행기까지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와 간호원도 같이 따라가도록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조선에 도착한지 수개월만에 완치된 몸으로 귀국하게 되였다. 똠빠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려해주신 특별비행기까지 타고 귀국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그 나라 대통령은 너무도 고마와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리고는 똠빠빠와 함께 온 조선의사들을 위한 연회도 차리고 자기의 전용직승기를 내여 그들이 기네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

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귀국할 때에는 정부성원들이 모두 비행장에 나가 바래주도록 하였다.

똠빠빠는 이렇게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났다.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그대로 불사약이 되여 그를 소생시키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자기가 쓴 어느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의 제1조국은 기네이고 제2조국은 **김일성**주석의 사랑의 품에서 두번다시 태여난 조선이다.》

마마두 장그베 우에드라오고(부르끼나 파쏘)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사실들을 목격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며 그 증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글을 쓰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그런 순간에 맞다들게 되는 때도 있다. 바로 이런 체험을 겪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는 매우 흥분되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다.》

이것은 상부볼따(오늘의 부르끼나 파쏘)의 한 신문사 책임주필이였던 마마두 장그베 우에드라오고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녔던 시각의 격정을 담아 쓴 글의 첫 대목이다.

평양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을 때의 일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도록 해주시였다. 그날 장그베는 위대한 수령님 가까이에 앉는 특전을 지니였으며 따뜻한 배려와 은정을 받아안게 되였다. 장그베는 한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을 맞이한것으로 하여 흥분되여있었다. 자기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무엇을 했기에 만민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다심한 보살피심을 받는단 말인가.

장그베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병이 완쾌된 그날이 떠올랐다. 그가 평양에 도착한지 며칠 지난 어느날이였다. 바로 그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실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장그베는 열이 오르고 머리가 몹시 아팠으나 그것을 숨기느라고 애썼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은 소망이 그의 마음에 꽉 차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장그베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갈데 대한 사랑의 지시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주시였다.

하지만 장그베는 세차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다지 아프지 않다고, 머리가 좀 아플뿐이라고, 자그마한 아픔때문에 귀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칠수 없다고 부르짖다싶이 말하였다.

안내원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주신 지시라고, 귀국하기 전에 꼭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수 있다고 몇번이나 말해서야 그는 병원으로 가는데 응하였다.

병원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치료조직을 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그베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당과 국가사업,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외국인인 자기의 건강에 대하여 그처럼 걱정해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기연미연한 마음으로 치료실에 있던 장그베는 의사실에서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듣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그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몸소 걸어오신 전화였다. 의사로부터 이에 대하여 전해들은 장그베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병원을 나설 때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귀국은 행운이 튼 나라입니다. **김일성**주석은 참말로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그이는 인간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의 전설적상징이십니다.》

이날 장그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으로 하여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속에 장그베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였다.

후날 장그베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만민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찌 흠모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자기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보살펴주고계시는 위대한분을 어떻게 존경하고 우러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나는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은 가장 고결한 사랑을 체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새 력사를 창조하신 끝없이 인자하고 위대하신 수령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돌려주신 배려를 통하여 나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력사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어떤 사랑도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시는 어버이 **김일성**주석의 사랑과는 비길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조선인민이 오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모든 가정에 생명수처럼 흘러들어 행복의 꽃이 피여나게 하는 **김일성**주석의 은혜로운 사랑과 고매한 은덕의 결과이다.

리기주의에 물젖은 자본주의사회가 인간의 모든 가치를 빼앗고있을 때 주체의 나라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가치와 존엄을 되찾아주시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해주고계신다.

이 세상에서 부럼없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락원에서 살고있는 어린이들과 인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린이들과 인민들이다.

김일성주석은 전인류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높은 존경과 끝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딸 쎄꾸(부르끼나 파쏘)

부르끼나 파쏘의 저명한 문인이며 사회활동가였던 딸 쎄꾸는 자주 이런 말을 하군 하였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이 짤막한 토로속에는 온 세계에 주체의 빛발을 찬연히 뿌리는 동방의 나라 조선에 대한 동경심이 비껴있다. 그리고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서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 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그의 마음속진정이 어리여있다.

1980년대 중엽 부르끼나 파쏘를 방문한 조선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딸 쎄꾸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주체사상에 공감하면서 그 창시자께 매혹되였고 또 창시자의 위업을 계승하시는 위인을 존경하게 되였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이것은 내가 인생체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매혹되였기에 그는 자기 한생의 총화작이라고 할수 있는 도서 《조선,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을 훌륭히 서술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그가 이 책을 내놓기까지는 10여년이란 시일이 걸렸다.

딸 쎄꾸가 그처럼 오랜 기간 이 도서를 집필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딸 쎄꾸가 2살 잡히던 해에 아버지는 그에게 《하루를 살아도 빛이 나는 일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0살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들은 그는 그후 문단에 발을 들여놓

았고 문필활동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감으로 차있었고 날이 갈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빛이 날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갈마들었다.

그러던 딸 쎄꾸가 인생전환의 새 출발을 하게 된것은 주체사상에 접한 때부터였다. 주체58(1969)년 어느날 그는 나이제리아에 갔다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였다. 그는 체류기일을 연장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많은 책을 밤을 지새워가며 탐독하였다.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인간중심의 사상을 받아안게 된 그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길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과 령도, 고매한 덕성을 세상에 전하는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였으며 10여년을 《조선,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이라는 도서집필에 바쳤다. 도서의 갈피갈피에는 딸 쎄꾸의 피타는 노력과 열정,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뢰의 정이 력력히 어려있다.

도서 《조선,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이야말로 주체사상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 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는 딸 쎄꾸의 진실한 감정의 산물이다.

일라 라으브 아멜라(베닌)

베닌의 일라 라으브 아멜라는 후대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정의와 량심을 심어주는 지성인이며 교육자였다. 베닌종합대학에서 교수로 사업하던 그는 이름난 정치인들, 사회활동가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으며 력사에 배출된 여러 위인에 대한 전기도 읽어보았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에 접하게 된 순간 그의 입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매혹적인 희세의 위인이시라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태양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활달하고 정력에 넘치신 여유작작한 몸가짐, 만사람을 단번에 끌어당기는 친근감과 감화력, 소탈하고 쾌활하신 성격, 하늘같은 도량과 바다같은 포옹력 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특출한 풍모는 이 세상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순간에 매혹시켰다.

그는 탄복과 경모로 세차게 들먹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세상에 소리높이 터치고싶었다. 하여 그는 시인은 아니지만 붓을 달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그이는 한번 뵈옵기만 하면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한다

빛나는 안광

자애로운 미소

정녕 그이는 위대한 령도자

영원히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동지

…

그가 쓴 시 《영원한 태양》에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그것은 곧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순결한 사상감정의 분출이기도 하다.

4. 아메리카의 벗들

피델 까스뜨로(꾸바)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의 회고내용을 담은 글이 언제인가 꾸바신문 《그란마》에 실렸다.

피델 까스뜨로는 7자루의 총으로 혁명을 시작하여 수십년간 꾸바를 이끈 견결한 반제투사, 권위있는 정치가로서 은퇴후에도 꾸바사람들속에서 명망이 높았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사실을 추억하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과 력사적인 상봉을 한것은 주체75(1986)년 3월이였다.

피델 까스뜨로는 그때 위대한 수령님과 더 일찌기 상봉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워하면서 **김일성**동지는 자기가 태여났을 때 벌써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시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동지와 상봉하는것을 응당한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씀올렸다.

그가 태여난 1926년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ㄷ》를 결성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시던 때였다. 그래서 피델 까스뜨로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선배로, 정치원로로 높이 존대하여마지 않았다.

하기에 그는 여러 기회에 **김일성**동지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중에서 가장 로련하고 권위있는분이시다,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동지를 만나 그이와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의견들을 나누고싶다고 외우군 했었다.

마침내 자기의 소망을 이룬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의 담화석상에서 경험과 교훈으로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착잡하게 엉켜진 국제정치정세문제며 렬강들간의 세력관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는 물론 백미는 몇분도로 정미하며 조선글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어 소가 쌀겨를 먹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가 알고싶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일목료연하게 교시하시였다.

그가 이날 길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문의를 하고 해답을 찾기는 처음이였다.

어느덧 그의 방문일정이 끝나게 되였다. 이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그의 수행원들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 피델 까스뜨로는 조선방문기일을 너무 짧게 잡았다고 하면서 기일을 연장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세계외교사에 보기 드문 일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피델 까스뜨로사이의 상봉은 계속되였고 담화석상에서 그는 **김일성**동지는 저의 스승이시고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다함없는 존경심을 금치 못하였다.

체 게바라(꾸바)

체 게바라로 말하면 아르헨띠나의 건축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일찌기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이다. 그는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벌려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그가 조선을 방문한것은 국립은행 총재로 사업하던 때인 주체49(1960)년 12월이였다.

꾸바혁명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12월 2일 체 게바라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첫 순간에 온넋이 끌린 그는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 피델 까스뜨로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이 겪고있는 난관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우려 한다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바란다고 진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 게바라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성과와 경험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신 다음 우리는 당신들을 적극 협조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체 게바라는 위대한 수령님께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터놓았다.

《저는 꾸바인민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에서 커다란 충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사심없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우리를 도와주실것을 확약하시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다시금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 게바라를 정답게 바라보시면서 물론 우리가 아직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꾸바혁명을 수호하도록 있는 힘껏 도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신성한 의무로 되기때문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곧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전사들이다, 우리는 꾸바혁명을 결코 남의 혁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동방에서, 당신들은 서반구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자고 교시하시였다.

체 게바라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어났다. 그는 격동된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디마디 힘을 주어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는 저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곧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전사들이라는 말씀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됩니다. 저는 이 시각부터 **김일성**동지의 그 말씀을 삶의 영원한 좌우명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명에 끝까지 충실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하는바입니다.》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체 게바라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국제주의에 충실하였다.

1965년 체 게바라는 불타는 혁명열의를 안고 승리한 꾸바땅을 떠나 수많은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기다리는 새로운 전구에로 투쟁무대를 옮기였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체 게바라의 희생을 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 게바라가 전사한지 1년이 되는 주체57(1968)년 10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에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라틴아메리카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인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동지가 볼리비아의 전투마당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와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체 게바라는 투쟁에서 지칠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가였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적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였다고,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견결한 혁명투사,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체 게바라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함께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이 지역 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희생을 무릅쓰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이고 영웅적인 혁명투쟁을 벌린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며 또 훌륭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삭막해지고 많은것이 잊혀지기 마련이다. 체 게바라가 희생된지 수십년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자 체 게바라와 그의 투쟁공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체 게바라가 자리잡고있었다.

주체79(1990)년 10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과 담화를 하시면서 그는 조선을 사랑하였다고, 꾸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다음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체 게바라는 훌륭한 국제주의전사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82(1993)년 4월 5일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담화를 하실 때에도 10월 8일은 체 게바라가 전사한 날일것이라고, 체 게바라는 꾸바혁명이 승리한 다음 인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나는 그때 그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식사도 함께 하였다고, 그는 훌륭한 혁명가였으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한없이 고결한 동지적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체 게바라를 훌륭한 혁명가, 참다운 국제주의전사로 력사에 아로새겨주시였다.

길례르모 가르씨아 프리아스(꾸바)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에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이며 혁명소좌인 길례르모 가르씨아 프리아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식물 향생강이 있다.

꾸바혁명의 탁월한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몹시 사랑하였고 꾸바인민들도 사랑하고있는 향생강은 꾸바의 국화이기도 하다. 꾸바의 혁명가들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시기 향생강의 꽃속에 비밀문건을 감추고 다니였다고 한다.

꾸바당과 정부는 꾸바주재 조선대사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향생강으로 엮은 꽃바구니를 보내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표시하군 하였다.

그러던 향생강이 지구의 서반구에서 멀리 떨어진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된데는 감동깊은 사연이 담겨져있다.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꾸바는 1980년대에도 곤난을 겪고 있었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주체75(1986)년 3월 조선을 방문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에게 있어서 조선방문은 위대한 수령님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고 한생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받게 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방문의 나날 그는 공식석상에서는 물론 휴계실과 달리는 승용차에서, 정원의 산책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알고싶었던 문제들을 마지막끝까지 다 질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게 된 경위와 그 본질적내용, 착잡하게 얽힌 국제정치정세와 렬강들간의 세력관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과 경제문화생활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물음은 무려 수백가지를 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띠우시고 과학적인 자료와 생동한 실례들까지 들어가며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은 천재적인 위인, 자신의 스승, 꾸바인민의 앞길을 밝혀주신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격동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참으로 이 기간은 피델 까스뜨

로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 격찬의 마음이 용암마냥 솟구치던 나날이였다.

그로부터 8년후인 주체83(1994)년 7월 꾸바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받게 되였다.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해하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리는 자기들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는가고 고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친분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길례르모 가르씨아는 국화인 향생강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것으로써 자기들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였다.

길례르모 가르씨아는 주체83(1994)년 10월 10일을 계기로 향생강을 선물로 삼가 보내여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는 꾸바혁명가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처럼 향생강이 조선에서 활짝 피여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꾸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그들가운데는 《장미꽃할머니》로 불리우는 꾸바의 한 녀성도 있다.

1997년 7월 8일 이른새벽,

꾸바의 수도 아바나의 어느한 꽃매대에 한 할머니가 다가섰다. 그를 본 꽃매대의 예쁘장스러운 처녀는 그에게 금방 망울을 터친 붉은 장미꽃 한송이를 특별히 골라주었다.

《오늘은 한송이 더 주게나.》

장미꽃만을 가져가던 할머니여서 그 처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어떤 색갈로 드릴가요？》

《흰것으로 주오.》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든 그는 거리에 나섰다.

이웃사람들은 그를 일명 《장미꽃할머니》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 할머니가 비오나 눈오나 거의 매일이다싶이 아침마다 붉은 장미를 손에 들고 오기때문이였다. 그는 3년세월을 이렇게 살고있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조선을 다녀온 후부터 새로 생긴것이다. 집에 들어서는 길로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는 방으로 향했다.

해빛이 밝게 비쳐드는 하얀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그아래에는 그가 조선을 방문할적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찍어주신 4상의 기념사진들도 모셔져있었다.

그는 수정꽃병에 방금 들고온 생화들을 갈아꽂았다.

《오늘이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인류의 곁을 떠난 8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던 그 통곡의 7월 8일, 악몽과도 같던 그날의 일이 정말로 꿈이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는 주석의 자애로운 모습과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그대로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석은 영원히 인류의 심장속에 살아계십니다.…》

꽃잎에 그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는 그 시각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여 동방의 나라 조선과의 인연속에서 흘러갔으며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게 되였는가를 되새겨보았다.

하다면 3년세월 매일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에 장미꽃을 드리고 인사를 올리는 할머니, 사람들속에서 《장미꽃할머니》로 불리우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1951년 5월 압록강을 건느는 국제민주녀성련맹의 조사단성원들속에는 20대의 한 나어린 꾸바처녀도 있었다.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죽음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그였다.

아바나종합대학 법률과를 졸업하고 아바나시재판소 변호사로 된 23살의 처녀, 그가 바로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였다.

그가 어떻게 되여 총포탄이 비발치는 조선으로 오게 되였는가.

당시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는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이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조선전쟁을 당장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도 평화를 옹호하는 녀성들의 이름으로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의 죄행을 조사하는 국제조사단을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이에 호응하는 가운데 꾸바민주녀성련맹은 깐델라리아를 자기의 대표로 선출하였다.

당시 그가 조선으로 간다는것을 안 미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들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다 못해 영원히 꾸바에 돌아오지 못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하지만 정의감이 강한 그는 조선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

그가 속한 조사단이 배와 찦차를 갈아타며 포연속을 뚫고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평양에 도착한것은 5월 중순이였다.

조사단이 공화국북반부의 신의주와 안악, 신천 등 각지를 돌아보며 목격한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자료를 묶어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총회의장과 유엔사무총장, 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세계의 모든 녀성들이 미제반대투쟁에 합류해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인 5월 27일 조사단성원들은 가장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조사단이 자기 사업을 마치고 귀국준비를 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최고사령관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름없는 외국인들을 만나주시다니…)

조사단성원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폭격에 사고는 없었는가,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꾸바대표인 깐델라리아가 23살의 처녀라는것을 아시고는 먼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케 왔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격려의 교시를 해주시였다.

깐델라리아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젊음에 넘치신 모습,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없을 담력, 호탕한 웃음에서 승리한 조선의 래일을 보았으며 그이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하기에 그는 꾸바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맡겼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도서 《내가 본 조선》을 집필하였다.

그의 정의로운 활동을 두고 당시 출판보도계는《당증없는 공산당원》이라고까지 소개하였다.

1959년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밑에 꾸바혁명이 승리한 후 그는 꾸바혁명무력성과 로동성 등 꾸바정계에서 의로운 활동을 계속하였다.

1993년 11월 5일은 깐델라리아가 위대한 수령님을 두번째로 만나뵈온 영광의 날이였다.

그가 드리는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0여년전의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아, 깐델라리아, 23살의 처녀가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됐어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마흔해도 지난 그때의 일을 하나하나 회고하시며 그동안에 있은 여러가지 일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으시였다.

그가 소박한 선물로 조각품 《싼따마리아》호와 책 《내가 본 조선》, 《우리는 고발한다》를 드렸을 때에는 못내 기뻐하시며 《싼따마리아》

호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할 때 타고온 3척의 배중의 하나라고 일군들에게 설명도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깐델라리아의 손목에 은정어린 금시계를 채워주시며 이제는 년로보장이라니 아무때나 조선에 와서 쉬고가라고, 평양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자주 오라고 다정히 교시하시였다.

그는 인생말년에 보통외국인이 한생을 살면서도 받을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그후 깐델라리아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인생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랐으며 자주 평양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오랜 시간 만나주시고 그가 쓴 글도 빠짐없이 읽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6월에도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며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자신께서는 건강하니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우리 더 건강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한달후 평양의 어느한 숙소에서 집필에 전념하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아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고 열번, 스무번 곱씹어 물은 그는 그길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으로 향하였다.

깐델라리아는 억수로 퍼붓는 비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조선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여 온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후부터 깐델라리아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아래 놓은 꽃병에 매일 장미꽃을 한송이씩 꽂아왔다. 이 습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 중단없이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이 되여오는 바로 이날에 깐델라리아는 이 세상 모든 진보적녀성들의 마음을 합쳐 붉은 장미와 순결의 상징인 흰 백합꽃도 함께 드리였다.

평범한 외국의 한 늙은이에 불과한 자기에게 최상의 행복과 영광을 주신 위대한 은인에 대한 흠모심을 변치 않은 깐델라리아,

그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세계 진보적 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라울 가르씨아 알바레스(꾸바)

주체77(1988)년 6월 꾸바의 어학전문가인 라울 가르씨아 알바레스가 조선주재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특파기자로 사업하기 위해 안해와 함께 평양에 왔다.

자기 조국을 멀리 떠나있었어도 그들은 생활상불편과 근심걱정이 없이 지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가지 남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정을 이룬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알바레스의 안해는 지난 기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산과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자식을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것을 억제할수 없었으며 남편을 따라 조선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그 소망은 더욱 커갔다.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평양산원에서 네쌍둥이와 세쌍둥이를 비롯한 수많은 새 생명들이 첫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인민들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하였기때문이였다.

더우기 조선주재 팔레스티나국가 대사의 안해가 산과의술이 발전하였다는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병원들을 돌아다녀도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조선에 온 후 우리 당의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옥동녀 《진달래》를 낳게 된 꿈과 같은 이야기는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알바레스의 안해는 평양산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기쁨과 함께 근심도 컸다. 석달이 지나면 체류일정이 끝나 조선을 떠나야 하기때문이였다. 날이 갈수록 그들부부의 얼굴에는 수심이 짙어갔다.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체류기일이 끝나도 그들이 계속 평양산원에서 해산방조를 받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그들부부에게 종전과 다름없는 생활상대우를 해주도록 하시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과 보살피심속에 알바레스의 안해는 마침내 첫아들을 보았다. 그들부부에게 있어서 참으로 꿈같은 경사였다. 형언할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휩싸인 그들부부는 밤새 의논한 끝에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기로 하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그이께서 자기 아들의 보호자가 되시여 그에게 조선꾸바친선의 상징이 되게 조선식이름을 지어주실것을 아뢰였다.

그들부부의 편지를 받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무랍없이 올린 그들의 청도 들어주시여 친히 《새별》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갓난아이에게 어린이옷, 졸인젖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보내주시였다.

알바 챠베스(에꽈도르)

에꽈도르국회 의원, 과야낄종합대학 부총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알바 챠베스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행운아들중의 한사람이다.

알바 챠베스는 녀성의 몸으로 대학시절부터 사회주의사상을 지향하여 투쟁하였으며 그것이 《죄》가 되여 감방생활을 하였다. 10년세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망명생활도 하였다. 그러나 참다운 사회주의리념과 그 구현의 길을 찾을수 없었다. 암중모색하던 그는 프랑스의 AFP통신사 기자가 쓴 조선방문기 《사회주의의 최우등생》을 보게 되였다.

조선이 세계사회주의의 본보기라고 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평양길에 올랐다.

조선에서 알바 챠베스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았다.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본보기나라를 일떠세우시여 인류에게 신심을 안겨주신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이것은 알바 챠베스의 마음속진정의 웨침이였다.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고 소원이였다.

주체79(1990)년 5월 그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론을 주셔야 할 국가적인 문제들이 수많이 기다리고있었지만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알바 챠베스의 가족일행을 불러주시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알바 챠베스는 물론 그의 남편과 아들딸들도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이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나주실가. 이런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한 알바 챠베스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의 가족을 기다리며 서계시였던것이다.

집을 떠나 멀리 갔던 친자식들을 맞아주시듯 알바 챠베스와 남편의 손을 일일이 따뜻이 잡아주시고 그의 아들들과 딸을 뜨겁게 포옹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방으로 친절히 안내해주시였다.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강이며 가정생활에 대하여 묻기도 하시면서 다심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한없이 너그럽고 소탈하신 그이의 인품에 이끌리여 알바 챠베스가족일행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려움을 잊고 그이께 평시에 생각하고있던바를 죄다 말씀올리고 외람된 청을 드리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랍없는 그들의 행동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점심식사나 함께 나누자고 따뜻이 말씀하시고 식사가 마련된 옆방으로 이끄시였다. 그러시고는 원형식탁을 가운데 두고 알바 챠베스와 그의 남편을 자신의 량옆에 앉히신 다음 아들들과 딸이 둘러앉도록 일일이 자리까지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다정히 물어보기도 하시며 조선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온 가족이 어느때든지 다시 와서 금강산, 묘향산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하라고 은정넘치는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에 하늘에서 별을 따오자고 결심하면 별도 따올수 있다고 하시며 조선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높이 내세우

는 사회라고, 때문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를 더없이 좋아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넘치는 배려속에서, 한없는 흠모의 감정속에서 한초한초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갔다.

온 가족이 조선방문의 나날에 며칠밤을 지새우며 쓴 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헌시》를 막내아들이 정중히 읊어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쳐주시며 감사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알바 챠베스와 그의 남편을 자신의 량옆에 세우신 다음 그옆에 아들딸들을 세우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후날 알바 챠베스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원래 나는 **김일성**주석의 로작을 탐독하면서 그이는 탁월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리론가, 군사적천재, 세련된 령도의 예술가이시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정작 몸가까이 만나뵈옵고 보니 그이는 탁월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리론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세련된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인류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인간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의 전설적상징이시다. 바로 그러한분이시기에 인간중심의 사회주의리론을 창시하실수 있었고 인민이 주인된 참다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실수 있었다.

나는 국경도 민족도 정견도 초월하여 풍기는 대성인의 독특한 위인적향기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에꽈도르)

에꽈도르의 볼룬따드출판사 총사장이였던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가 조선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950년대초였다.

당시 그는 한 친구로부터 몇종의 단행본을 출판해줄것을 부탁받게 되였다. 그것이 인생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될줄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후날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나는 도서출판에 앞서 그 내용을 료해하였다. 단행본들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이 수록되여있었는데 그것을 읽는 과정에 나는 새로운 〈성서〉를 발견한듯한 기쁨과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철두철미 인간중심, 인간사랑으로 일관된 로작들에는 현시기 인류가 갈망하는 인생의 참된 길이 밝혀져있었으며 만민복지의 리상사회가 그려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받은 충동으로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던 움베르또는 지체없이 로작출판사업에 달라붙었다. 로작들은 보급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출판사에 련이어 전화가 걸려오고 편지가 날아들었으며 사람들이 저저마다 찾아왔다. 그들모두는 한결같이 흥분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읽은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책을 더 많이 출판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열정에 넘친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는 손길들에서 움베르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에게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되였으며 그이를 만나뵈올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게 되였다.

마침내 움베르또는 주체63(1974)년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친히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그를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는 움베르또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길을 온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출판물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마치도 옛친구를 만난것과 같은 감정이라고 따뜻한 교시도 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움베르또에게 세계정치정세와 조선의 통일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출판업자에 불과한 자기를 스스럼없이 대해주시면서 세계정치의 대소사를 론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움베르또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에꽈도르와 조선의 친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움베르또를 오찬회에 초대하시고 그의 건강을 축원하여 축배잔도 나누시였으며 오찬회가 끝날 때에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다시 올 때에는 부인과 아이들도 데리고오라고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날부터 움베르또는 위대한 수령님의 벗으로, 제자로 세상에 다시 태여나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주체66(1977)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움베르또의 가족일행을 초청하시였다.

조선을 방문하게 된 기쁨에 휩싸여 어쩔줄 몰라하는 안해와 아이들을 데리고 움베르또는 조선방문의 길에 또다시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루에도 몇차례나 움베르또가족일행의 참관정형을 알아보시고 참관일정을 잘 조직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움베르또의 가족을 만나주시여서는 안해와 아이들에게 나이는 몇살인가, 조선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그들 앞으로 색다른 음식그릇들을 옮겨놓으시며 사양말고 많이 들라고, 그래야 자신의 마음도 기쁘다고 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친부모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움베르또의 가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는 그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주체69(1980)년 10월 조선을 방문한 움베르또가 이곳에서 생일 쉰돐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시고는 친히 생일축하연을 마련해주시고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신 사실, 어느해 여름 조선을 방문한 둘째아들의 생일을 축하하여 꽃과자와 과일바구니를 보내주신 사실 그리고 맏딸 빠올라가 결혼하게 되였을 때에는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들부부를 평양에 불러주신 사실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움베르또의 가족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여러차례의 조선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이야말로 인류의 리상사회라는것을 확신한 움베르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수많이 출판하였다. 그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배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진리를 깨닫고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사람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상한 정열을 발휘하기마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움베르또는 반동들의 회유와 위협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였으며 자식들도 그 길에 내세웠다.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가이아나)

가이아나대통령이였던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였고 가이아나인민의 훌륭한 지도자, 열렬한 반제투사였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과 봉쇄가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이아나를 자주적발전의 길로 확고히 이끌었다.

대학시절에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으로부터 나라를 독립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참가한 그는 1966년 나라가 독립된 후 초대수상의 무거운 직무를 맡게 되였다.

사회주의력량과 제국주의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던 그때 그는 자기 조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모대기였다. 그는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고전들도 읽어보았고 한다하는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밤을 밝히면서 연구하였으며 자본주의정치풍토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식민주의자들로부터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고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자기 나라 실정에서 사회건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옳바른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오래동안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나라 지도자를 만나 경험도 들어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협조와 원조도 요청하면서 암중모색하였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접하게 되였다.

이 고전적로작을 읽고났을 때 그의 심장은 흥분과 격정으로 터질것만 같았다. 마치 캄캄한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등대를 발견한듯한 심정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서 가이아나가 나아갈 길,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길을 찾았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

이라고,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이 고귀한 철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와 압력이 우심한 곳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귀중한 《라침판》으로 되였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머나먼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비치는 주체의 빛발을 받아안게 된 그의 마음은 세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로만 달렸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이 세차게 북받쳤다.

마침내 그의 소원이 성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여러 공장과 농촌, 교육기관과 문화시설들을 돌아보고 예술공연들을 관람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포악무도한 일제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뒤이어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 페허로 되였던 조선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문학가이면서도 법률가이기도 하였다. 하기에 그는 흥분을 자제하고 조선의 현실을 보다 깊이 료해하고 분석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보면 볼수록 경탄만을 자아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오면서 그의 격정은 더욱 커졌다.

가이아나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그에게 있어서 한없이 고마운 은인이시였고 눈부신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번함대통령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심원하고도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탄복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조국으로 돌아온 번함대통령을 그 나라 인민들은《해빛을 안고 온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반겨맞았다.

그는 귀국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조선과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만이 가이아나가 나아갈 위대한 길이다. 사회주의 건설성과는 인민의 의식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부문에서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을 의식화하자. 의식화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번함대통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 심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인민대중을 이끌어 새 사회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의 마지막시기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고 한다.

《나의 사랑하는 인민들과 나의 귀중한 동지들, 나는 죽지 않는다. 나의 조국 가이아나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는 한 나는 살아있을것이다. 주체의 궤도, 이 길은 오늘날 인류가 대행진해가는 길이다. 주체의 궤도, 이것을 어기면 죽음뿐이다. 궤도를 어기지 말라.》

이것은 번함대통령이 자기의 심장속에 억세게 자리잡고있은 고귀한 진리를 가이아나인민들에게 새겨준 귀중한 유언이였다.

잭크 반즈(미국)

주체79(1990)년 10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4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미국사회로동당 전국비서 잭크 반즈를 만나주시였다.

반즈는 세계혁명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면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사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부탁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전략》에 따라 총포소리없는 전쟁을 벌려놓고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공격하고있다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있다고,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적기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사에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구절이 있다고, 노래가사에도 있는바와 같이 비겁한자들이 간다 해도 혁명하는 사람들은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반즈는 커다란 충동을 금치 못하며 《적기가》는 단순히 노래이기에 앞서 혁명가들의 신념의 웨침이며 투쟁의 송가라고 흥분에 넘쳐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는 아시아에서 붉은기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갈것이라고 그루를 박아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국사회로동당이 앞으로도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기 바란다는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간 반즈는 평양방문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주석동지를 만나뵙고 내가 제일 감동된것은 그이께서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계시는것이였다. 나는 제국주의렬강들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것이 어리석고 허황한짓임을 깨닫게 되였다. 지금 제국주의렬강들은 〈핵무기〉나 〈딸라무기〉를 가지고 조선을 어째보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개꿈에 불과한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핵무기〉나 〈딸라무기〉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노래포〉가 있기때문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노래포〉란 어떤 신형무기인가?》

반즈는 정색하여 대답했다. 《그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적기가〉이다.》

반즈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에 안겨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죠세트 샤이너(미국)

주체81(1992)년 4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부주필 죠세트 샤이너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워싱톤 타임스》기자단을 만나주시였다.

담화과정에 한없이 소탈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끌린 죠세트 샤이너는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많은 사람들이 주석께서 80대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과 즐기시는 취미는 무엇인가고 질문하였다. 그리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실가 하고 호기심이 짙은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외국기자들 특히 서방기자들은 국가수반이나 이름난 정치가들을 만나면 그들이 즐기는 개인적취미나 사생활 등에 대해 류달리 관심을 돌리

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취미, 사생활 등을 통해 그들이 지닌 인간적풍모를 가늠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 죠세트 샤이너가 그러한 질문을 한것은 지난 시기 다른 국가수반들이나 정치가들에게 품었던 호기심을 뛰여넘는것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인된 세계정치원로이시고 세계에 높은 명망을 지니신분으로 널리 알려져있기때문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분명 남다른 취미나 오락, 체육을 즐기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죠세트 샤이너의 무랍없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을 때마다 자신께서는 락천적으로 사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대답하군 한다는데 대하여, 자신에게는 내놓고 말할만 한 특별한 취미나 오락이 따로 없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어리둥절해하는 죠세트 샤이너에게 굳이 취미라고 한다면 둬가지로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죠세트 샤이너는 또다시 놀랐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수반들, 정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과 함께 지내는것이 취미라는 말은 처음 들었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속생각을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가수반들과 제노라 하는 정객들로부터 사냥이나 낚시질, 수영이나 유흥이 자기의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책읽기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을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석각하의 취미는 너무도 소박하고 지어 그것을 취미라고 할수 있겠는지 의문스러운것이지만 담겨진 뜻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참으로 주석각하의 취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위인의 취미입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 미국 CNN TV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죠세트 샤이너와 방송기자와의 대담을 보도하였다.

죠세트 샤이너는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다른 나라 국가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분이시였다. 그이는 평범하고 정력적인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시였고 질문에 사리정연하게 대답해주시였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그이께서 주의주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매우 소탈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